

할렐루야 주님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 해에도 허락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세계 곳곳에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4년 2월 3일 (토) 제 1955 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전인적 돌봄에 참여하는 교회

로잔에서 서울까지 "로잔 글로벌 분석",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를 준비하며

교회 없이 추구하는 전인적 선교?

종종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일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때가 있다. 고집이 센 의사가 많은데,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혼란스러운 경험의 필요하다.

나는 약 30년 전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선교지에 헌신했다. 그 이후 3년을 열심히 일했고, 1999년 크리스마스이브에 나는 무릎을 꿇었다. 실패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일이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무렵 나는 영적인 돌봄과 육체적 돌봄을 병행하고 있었다. 약 5,000명의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 사역을 운영했다. 여기에는 우리 집 뒷마당에서 열린 어린이 400명을 위한 크리스마스 전 방학 성경학교(Vacation Bible School) 등의 취약 계층 어린이를 위한 사역도 포함되었다. 게다가 나는 남편과 두 아이도 보살피고 있었다. 정신없이 바빴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인 방학 성경학교였다.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나 성경학교에 필요한 빵을 구하기 위해 여러 빵집을 들렀다. 안개가 자욱하고 추운 아침,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한 광경은 나를 완전히 충격



에 빠뜨렸다. 우리 선교센터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5살, 7살, 10살 아이들이 새벽 6시부터 추위에 떨며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다. 마음이 아팠다.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충동을 물리쳐야 했다. 방금 산 빵을 아이들에게 줄까도 생각했다. 우리 가족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더하여 보육원도 시작해야 하는 건가 고민했다. 어떻게 그런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겠는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정서적, 정신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건강상의 필요를 위한 처방만 내릴 수 있겠는가?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전인적인 돌봄을 경험할 수 있을까?

게기
나는 며칠 동안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고, 그 이후 사역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빵을 나눠주는 일, 보육원 운영, 계속해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성경학교를 운영하는 일은 더 이상 내가 담당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모든 것을 멈춰야 했다. 더 이상 '내가' 맡는 것이 아니다. 대신, 교회가 전인적인 돌봄과 지역사회의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전략을 전인적 사역(holistic ministry)이라고 부른다. 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응답을 제시할 것이다:

-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일으켜 세운다.

- 각 지역사회에서 취약 계층에 힘을 불어넣어, 가장 작은 자들에게도 존엄성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시스템과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피해자를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결과를 경험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이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와의 협력을 통해 3년 후 이 교회들이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을 완전히 주도하며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잘 준비된 출구 전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국제 LIA(Life in Abundance)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접근 방식이다.

<3면으로 계속>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자기 위로의 위험

얼마 전 나는 Wired 인쇄판에서 "클라우드소싱 치료"를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 "자기 위로"(self-soothing)를 선호하는 우리 세대에 관한 통찰력 있는 칼럼 하나를 접했다. 검증은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전환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신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수단으로 점점 더 "치료 말하기"를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이 실제로 치료를 담당하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런 추세가 온라인에서 점점 더 많은 청중을 확보하는 일종의 치료의 대체 역할을 한다는 데에 있다.

대중 증세를 확인하고 의료 잡지 WebMD를 정독함으로써, 자신이나 가족의 병명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잘못된 자신감처럼, 우리는 다양한 심리적 질병에 대

해 조언을 제공하는 온라인 자기 개발 전문가와 자칭 치료사를 지나치게 신뢰하고 있다. The Atlantic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시장에는 확실한 청중이 있다. "수많은 소셜 미디어가 우리의 불안, 트라우마, 고통에 대해 더 잘 인식하고 말하는 영향력 있는 치료사의 목소리로 가득하다. 인스타그램에서는 불안한 고백과 치료 이야기로 차고 넘친다. TikTok 해시태그 #Trauma의 조회수는 60억 회 이상이다. ... 5,500개 이상의 팟캐스트 제목에 트라우마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우리 사회에 트라우마, 학대, 우울증, 불안, 그리고 독성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단어를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이고 또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9면으로 계속>



2면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4면 푸른초장 백승욱 목사



13면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 (NEW) 강태광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양)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SEED 선교회 / 선교사 모집

2024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학교

예수님이 당신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함께 하는 선교'를 지향하는 SEED선교회가 도와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 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자, 장소

- 4월 1일 - 5월 9일 (ICTC 훈련원, 캐나다 밴쿠버)
- 7월 1일 - 8월 9일 (SEED Mission Center, 미국 버지니아) (가족이 함께 하는 40일 공동체 훈련, 4월, 7월 중 선택)

대상

- SEED선교회에 가입하기 원하는 청년 선교 헌신자,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 선교지 - 일본, 동서남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북미
- 사역 - 교육, 의료, 교회개척, 신학 교수, 문화 (예술, 방송, 미디어), IT

비용

USD 1,500불 (7세이상 자녀 1000불) 숙식 포함

등록

- 거주 국가 SEED 선교회에 가입 후 선교사 학교 등록
- **SEED USA**
562-926-4700 / seedwo@gmail.com
- **SEED Canada**
604-889-5800 / admin.seedcanada@gmail.com

정보

www.seedtoday.org



SEED International / Missionary Training Program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 in 2024

"Learn of me; for I am meek and lowly in heart."
(Matt. 11:29)

Are you called to be a missionary?
Missions cannot be done by missionaries alone.
SEED International, which pursues missions with churches, is here to help.
We invite you to the bilingual <Imitating Christ Missionary School>.

When & Where

- April 1 - May 9 (ICTC Training Center, Vancouver, Canada)
- July 1 - August 9 (SEED Mission Center, Virginia, USA)
(40-day community life for families, choose between April or July school)

Who can come?

- Young missionary prospects, field missionaries, pastors, and laypeople who want to join SEED.
- Mission Field - Japan, East and Southwest Asia, Africa, Europe, Middle East, Central Asia, Latin America, North America
- Ministries - education, medical care, church planting, theology professors, BAM, media, home office works, etc.

Cost

- USD \$1,500 per person (\$1000 per child) Includes accommodation and meals.

Registration

- Apply first for a membership at SEED Office in your country of residence and then register for missionary school.

SEED USA

562-926-4700 / seedwo@gmail.com

SEED Canada

604-889-5800 / admin.seedcanada@gmail.com

Information / www.seedtoday.org

발행인 칼럼

그 사람이 되겠는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 사람이 그대는 가졌는가?” 아주 오래 전에 던졌던 함석헌(翁)의 질문은 누구나 대답해야 할 숙제와도 같다. “만 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 도/ ‘저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텃 년 배 끼치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 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하나 있으니’ 하며/ 병곳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런 그 사람을 가졌다면 그는 다른 것이 없어도 행복한 인생이요 성공한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이 이미 있다면 진심으로 크게 축하할 일이다. 아직 그 사람이 없는 사람은 흐르는 세월 속에 그 사람도 함께 흘러보내며 그 사람 찾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리라.

다윗은 그 사람을 가졌다. 요나단은 왕이 될 왕자였다. 자기 생명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던 요나단.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삼상 19:1) 사실 다윗은 요나단이 왕이 되는데 최대의 걸림돌이었다. 정치적으로 다윗이 죽는다면 요나단에게 그 얼마나 속 시원한 일이 되겠는가. 그러나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라는 아버지 사울의 부당한 명령을 묵숨 걸고 거부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리라” (삼상 18:1b) 그렇다. 참된 사랑, 진정한 우정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대상을 내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다.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것같이. 다윗이 죽지 않고 왕이 되는 데는 요나단의 마음을 다한 우정을 빼놓을 수 없다. 우정을 의리로 갖춘 사람, 다윗. 그는 자기에게 쏟아 부어준 요나단의 우정을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잊지 않고 그의 아들 므비보셋에게 평생 값으며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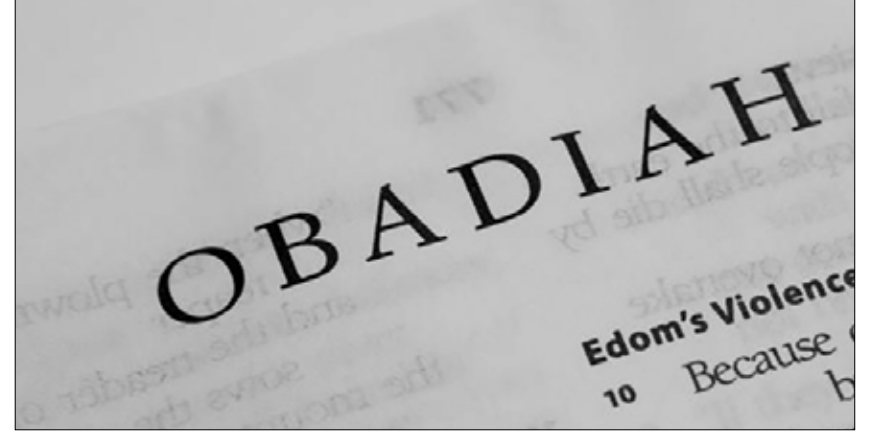
요나단 같은 그 사람을 찾기가 힘든가? 힘들게 그 사람을 계속 찾으려만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그 사람의 요나단이 되는 것은 어떻게겠는가. 김재준 시인의 다짐처럼 말이다. “어느 날 네가 메마른 들꽃으로 피어 흔들리고 있다면 소리 없이 구르는 개울 되어 네 곁에 흐르리라/ 저물 녘 들판에 혼자 서서 내가 말없이 어둠을 맞이하고 있다면 작지만 꺼지지 않은 모닥불 되어 네 곁에 타오르리라----” 메마른 들꽃 같은 이의 옆에서 구르는 개울이 되어 그를 적셔 주고, 어둠 속에 홀로 있는 이의 앞에서 꺼지지 않는 모닥불이 되어 그를 밝혀주는 그 사람이 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우며 아름답겠는가.

저기, 메마른 사람이 있다. 여기, 외로운 사람도 있다. 그들은 아직도 그 사람을 갖지 못해 당혹스런 적막감에 깊이 빠져 있다. 그들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느 누구도 메마르게 살라, 외롭게 살라고 만들지 않으셨다. 내가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처자를 내게 맡겨다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 만은 살아다오” 라고 하긴 쉽지 않겠지만, 소리 없이 구르는 개울이 되어주고 꺼지지 않는 작은 모닥불이 되어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니 내게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질문 보다 “그 사람이 되겠는가?” 가 더 요긴한 숙제이다.

우리에게 오바다가 필요하다

J. L. 마이어의 1923년 고전 The Dawn of History(역사의 여명) 첫 장은 수백만 명이 아무런 역사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았음을 상기시킨다. 세상이 현재 그대로 앞으로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든 역사의 원호가 휘는 법이 없다. 그렇게 믿지 않는 건 망상이며 거짓된 희망을 낳는다는 게 그들의 생각이다. 그럼에도 이 사회가 여전히 기독교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에, 우리는 전혀 다른 상상을 한다.

그러나 진보에 대한 믿음이 단지 고려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대안으로 인해서 생긴 순진한 발상에 불과할까? 우리에게 우리는 이끄는 끝, 텔로스(telos)가 있는가? 짧고 생소한 오바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더 큰 의식을 발전시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준다. 에돔에 관한 이 이상하고 작은 책은 어둠과, 국가주의적이며, 심지어 복수심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오바다는 우리



역사에는 과연 목적이 있는가? 정의가 구현되는 날이 올까? 오바다는 확신에 차서 그렇다고 대답한다. 패배한 민족을 향해서 선지자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선포한다(15절). 유다의 패배가 여호와와 그의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았다. 연합한 적들 부족이 에돔에 접근했을 때, 오바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을 목격했다. 리차드 린츠의 말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교훈이었

이 있다. 우리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잘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은 종말론적이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이 없이는 도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게 현실이 아닌가.

오바다는 힘든 현실을 사는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그날”이라는 표현은 11-14절에 여덟 번 나오며, 항상 부정적인 의미, 즉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더 이상 진노의 잔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에게 몇 가지 선물을 준다. 다음 아니라 역사와 종말론,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왜 역사가 필요한가

오바다는 역사 속에서 작동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영감받은 통찰력을 말이 아니라 “계시”(1절)를 통해서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에돔에게 말을 거는 오바다는 이러한 통찰력으로 유다를 격려한다. 유다는 지금 막 엄청난 타격을 입었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이 약탈되고 그에 따른 유배가 시작된 거 같다. 하나님의 백성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후퇴하고 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일까? 바알이 여호와보다 강한가? 이웃 에돔은 그의 형제의 멸망을 보고 기뻐한다. 그리고 약탈을 하며 악행에 가담한다(10-14절). 에돔은 그 모든 나쁜 짓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며, 바로 그 점이 유다에게는 오바다의 메시지가 필요한 이유이다.

다. ... 물론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역사는 반복될 수 있기에 기록되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과거 행위가 그분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근거라는 원칙에 따라서 역사가 기록되었다.

오바다는 구속사의 안경을 쓰고 역사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법을 가르쳐 준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시는지에 추상적 개념으로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행동을 통해서 알고 있다.

왜 종말론이 필요한가

히틀러의 선전이 요제프 괴벨스는 “세상을 향해서 첫마디를 하는 사람은 언제나 옳다”라고 선언했다. 나치 정권에 대한 역사의 판단은 그가 틀렸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 단어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

환난, 재난, 불행의 날을 의미한다. 그러나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느니라”라는 종말론적 소망이 터져 나온다. 그날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아직’이 마침내 ‘지금’과 ‘드디어’가 되는 날이다.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끝내내 모든 잘못이 바로잡힐 것이다. 큰 불행을 겪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바다는 다가올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격려하고 싶어한다. 에돔이 행한 불의함은 그에게 고스란히 다시 닦질 것이다(15절). 모든 빛은 청산되고, 모든 계좌는 정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제대로 다루시지 않는다면, 천국조차도 지옥이 될 것이다. 과거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정의를 갈망한다. “그때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 계셨는가?”라고 울부짖을 때마다, 사실상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은 필요하고 옳은 일이다.

(15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역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현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어리 | 신년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 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담임 목사 청빙 공고
새민음장로교회는 개척 설립 후 24년이 된 교회로, PCA(미국 장로회) 한인남부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제1대 담임 목사가 2024년 11월에 은퇴를 준비하면서 제2대 담임 목사를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자격 요건:
1. PCA 교단 소속이거나 교단 가입에 하자가 없으신 분
2. PCA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 대학이나 일반 대학(B,A) 졸업 이후에 신학대학원(M.Div) 이상을 공부하신 분
3.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4. 목사 안수 후 Full Time으로 미국에서 3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
5. 이중 언어 설교(한국어/영어)가 가능하신 분
6. 목회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7. 나이는 만 40세에서 55세까지에 해당되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사진 첨부, 한국어) 2부
2. 자기소개서 및 가족소개서 2부
3. 목사 안수 증명서 2부
4. 대학 졸업 증명서 2부, 신학교 졸업 증명서 2부
5. 추천서: 목회자 추천서 1부, 신학교 교수 추천서 1부(추천자가 직접 이메일(lee1954us@yahoo.com)로 제출함)
6.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동영상 3회분(USB로 제출)
7. 나의 신앙 고백서 2부
8. 나의 목회 철학과 이민 목회 계획서 2부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프린트하여서 우편으로만 접수를 받으며 설교 동영상만 USB에 담아서 함께 제출하실 것
2. 모든 서류는 오직 목사 청빙에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청빙 결과는 개별 통지해 드리며 전화로 문의하는 일은 사절합니다
4. 제출 마감은 2024년 4월 15일까지이며, 제출처는 <새민음장로교회 청빙위원회 귀중, KFPCH 9742 Clay Road, Houston, Texas, 77080>입니다.
5. 2024년 6월 말까지 결정이 되면, 7월부터 10월까지의 동사목사로 시무하며, 11월 10일 주일에 담임 목사 이취임식을 할 예정입니다
6. 새민음장로교회의 웹사이트는 WWW.KFPCH.ORG 입니다.

담임 목사 청빙 광고
민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살렛 벨엘 교회에서 함께할 담임 목사를 찾습니다
저희 살렛 벨엘 교회는 ARP (Associat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교단 제일 노회 (First Presbytery) 소속이며 노스 캐롤라이나 살렛에 위치 하고 있고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28 년동안 우리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은퇴를 하시게 되었기에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자기 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진 자
한국어 와 영어 모두 능통한 자
영주권자 나 시민권자 로써 이민법상 신분에 문제가 없는자
ARP 교단에서 인정 한 학교의 M Div. degree 이상 소유자
ARP 교단 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거나 인준 기준에 결격 사유 없는자
이민교회 목회 사역 3년 경력 이상 (전도사 포함 5년 이상)
미국과 한국에서 신학 공부 한자
연령: 43세 - 55세 (만 나이)
제출 서류:
이력서 (사진과 가족사항 포함) - 3 page 이하
자기소개서 (사역 경험과 목회 비전 포함) - 10 page 이하
목사 안수 증명서
졸업 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최근설교영상(2년 이내) - YouTube Link 또는 영상 파일
모든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 바랍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 2024년 3월 31일
관심있는 분은 서류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 들 이 있다면 함께 첨부해 주세요. 제출된 서류는 청빙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리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의껏 검토 후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빙위원회 위원장 이민혁 장로 email: bethelkc7121@outlook.com Cell: 704-724-2465
살렛벨엘교회 청빙위원회
7121 Delta Lake Dr, Charlotte, NC 28215 | (704) 566-7173

전인적 돌봄에 참여하는 교회

(1면에서 계속)

교회 참여 접근 방식과 성경적 근거

이 모델은 예수님의 사명을 설명하는 이사야 61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이사야 61장은 공의가 나타날 때까지 어떠한 회복이 수반되는지, 그리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한다. 예수님의 이 사명은 그의 제자인 우리가 뒤따라가는 전인적인 사역이다.

우리는 지역사회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해하고 환영하기 위해 먼저 그 지역사회의 안팎에서 기도로 시작한다. 그다음 전략적으로 배치된 교회의 리더들을 모아 비전 수립 세미나를 열고 교회의 총체적 사역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설명한다. 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리더들은 훈련자를 위한 훈련(Training of Trainers)에 초대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참여형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다. 지역사회 동원과 조직화가 이어진다. 그리고 우선으로 다루야 한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인 실행을 시작한다. 교회는 3년의 기간 동안 지역사회 건강, 교육, 경제적 역량 강화, 사회 참여 분야에서 추가적인 참여를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 일부이며,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참여하게 된다.

국제 LIA 촉진자(facilitator)은 3년 동안 교회와 멘토링의 관계를 맺으며, 교회가 섬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격려한다. 지역 교회는 전략적으로 빈곤한 지역사회 내에 위치하게 된다. 지역 교회는 변화의 주체이다. 그들이 바로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교회를 중심에 두고 이사야 61장에 묘사된 예수님의 사명을 실행해 나간다. 연구에 따르면 지역 공동체가 변화된 모습으로

살 때, 그들은 LIA나 우리가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으로 교회를 언급한다.

참여하고 있는 교회로부터의 영향력

우리는 25년 전, 10년 전, 가깝게는 3년 전에 우리가 떠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이 남아 있는지 궁금하다. 과연 우리가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왔을까? 우리의 사역이 마무리된 지역사회에서 우리와 협력 관계를 맺은 수백 개의 교회를 통해 보고받을 만한 지속적인 영향이 있는가? 과거와 현재에 대한 투자 가치가 있었는가?

이러한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2015년 우리는 과감하게 독립 그룹에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를 의뢰했다. 이 그룹의 임무는 우리가 함께 일했던 모든 지역사회 중에서 무작위로 6개의 지역사회를 선정하여 단기 및 장기 모델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이 데이터를 통해 그들은 지역사회에서 모델이 구현되면, 촉진자가 떠난 후에도 그 지역사회에서 총체적인 변화가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다는 가설에 답했다.

평가자들은 여섯개의 지역사회를 선택하고 전인적 돌봄의 관점에서 6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그 지속성을 평가했다:

- 경제적 역량 강화
- 지역사회 건강
- 교육
- 환경 영향
- 사회적 참여
- 영적 변화

또한, 지역사회 내 직접적인 수혜자와 초기 지역사회를 넘어선 영향력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영향력의 수준을 평가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직접 수혜자에게 지속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의 참여형 프로그램 서비스의 통해 대상 수혜자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직접 수혜자들이 사는 지역사회에도 지속적인 영향이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이웃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평가 대상이었던 모든 지역사회에서 나타났다. 또한, 이 평가 대상 중 세 곳의 지역

교회는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새로운 지역사회에서 동일한 프로젝트를 재현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했다. 이는 개발자가 떠난 후에 영향력이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 기존의 개발 및 인도주의 활동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이다. 놀랍게도 몇몇 현장의 연구원들은 지역사회 내 영향의 파급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큰 감동을 받았지만, 그 결과에는 놀라지 않았다.

그 연구 보고서는 세 가지 요점으로 결론을 내렸다:

- 이 사역은 촉진자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 방문한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총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 이와 같은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 교회를 통한 총체적인 돌봄의 모델이 필수적이다. 이 모델의 구성 요소는 모두 함께 기능하며, 어느 하나도 독립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상호의존성은 모든 현장에서 깊고 복잡한 수준으로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하나님께 우리와 교회를 통해 행하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에 열린 이 구형 활동은 지역 교회로 이어졌고, 그리고 첫 번째 훈련자의 훈련, 3년간의 시범 운영, 그리고 아프리카 12개국과 카리브해 2개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역으로 이어졌다. 수년 동안 200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전인적인 돌봄을 받았다. 직접적인 돌봄을 받은 사람 중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3,500곳 이상의 교회가 준비되어 있으며, 14개국과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교회가 준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역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전인적 돌봄의 사역을 해나가고 있다.

현재 동향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을 하기를 요구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1999년 크리스마스이브의 사건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도 여전히 첫 번째 공동체에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온 정신을 집중하고 영유처럼 그들을 위해 일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을 것이다. 항상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나는 의존해야 하는 곳이 점점 더 많아지며, 지치고, '선한 일'이라고 불리는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신부를 비하하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는 이기적인 해를 끼치고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영웅이 되고 영광을 차지하라고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을 높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는 지역 교회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우리의 발자취를 남긴 곳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전략은 효과가 있고,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축복하시는 것의 핵심적인 특징을 담아낸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이자 방법이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 행동하고, 육체적인 변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 지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며,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이를 회화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속적인 영적인 목소리이다. 지역사회가 교회 기반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교회의 기능을 받아들이고 프로그램 활동 내에서 교회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교회의 통합적 선교는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효과적인 선교의 현 추세이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처럼, 선포된 말씀은 변혁적인 변화를 일으킬 힘을 가지고 있다. 영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만이 영적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 행동하고, 육체적인 변화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 오신 구속 사역이며, 예수님은 이 사역을 축복하시며 자신의 교회 위에서 세우신다.

by Florence Muidil, TGC

시론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신앙인과 정치

지난 주간에 한국의 모 정치인이 테러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야당의 대표가 테러를 당한데 이어 이번에는 여당의원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정치의 양극화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4년 올해는 유별나게 선거를 치르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대략 50여 국가에서 선거가 있습니다. 지난 1월 13일에 대만에서 총통선거가 있었고 3월에는 인도와 이란에서 총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4월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6월에는 유럽 의회선거 및 멕시코 대통령 선거가 있고 11월에는 세계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흐름이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러한 질문은 근본적이면서도 오래된 질문이고 그 대답도 너무나 다양합니다. 신앙인도 시민이며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한 국가의 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과 신앙인들이 모인 교회가 정치적인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에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교회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권을 사용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치의 현실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기에 신앙인들에게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투표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그리고 피해서도 되지 않는 신앙인들의 정치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정치운동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이뤄지는 모든 정치사상이나 행위의 뿌리가 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의 회복과 치유를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며 가르치셨습니다. 타락된 본성의 치유와 회복이 없는 인간으로부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정치적인 열매는 기껏해야 정치를 통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치집단의 권력과 이익을 쟁기는 패거리 정치일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 순간부터 본의든 아니든 정치라는 큰 흐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선거를 통한 정치의 참여와는 달리 직업적인 정치인으로 발을 벗고 나서는 것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를 둘러보는 것과 교회가 특정한 정치집단의 뒷배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주제입니다.

교회는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복음을 통한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그 회복을 통해 정치를 포함한 사회전체를 살려 나가는 것을 중심적인 목표와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근본적인 정치의 참여이며 방향입니다!

hankschoi@gmail.com

Candidacy Qualification

Individuals who have obtained or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including the 30th) with a Master of Divinity (M.Div) degree from seminaries managed by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r affiliated with the General Assembly, and are committed to Reformed Theology with a blameless life in faith, clear calling and spiritual leadership.

Exam Subjects

- Exegesis on Reformed Theology Perspective
- a) Written Test :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 b) Written Assignment :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Sermon Manuscript
 - (1) OT Exegesis Text : Leviticus 1:1-9 (2) NT Exegesis Text : Galatians 2:11-21 (3) Thesis Topic : "Revitalization Plans & Strategies for Sunday School (Next Generation) after Pandemic"
 - (4) Sermon Text : (Choose One) O.T- Judges 2:1-10 "There Arose Another Generation after Them", N.T- Colossians 1:24 "Lacking in the Sufferings of Christ"
 -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spaced,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 Ⓞ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 Ⓞ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euihan@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①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②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JosephKim-OTExegesisPaper.pdf)
 - c) Oral Interview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2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0, 2024 (Mailed documents must be post-marked by March 30, 2024.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will not be returned to Candidates.
-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1-24, 20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passed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announced on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Exam Date and Place

- Dates : May 20(Mon)~21(Tue), 2024
- Place : Embassy Suites by Hilton San Francisco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Accompanying Documents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y June 29, 2024.
-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the presbytery under which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Curriculum Vita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Fee: \$100 (USD). Notice after receipt

Miscellaneous Information

-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for the dates of exam (5/20,21) through Rev. Joseph Kim
- Candidates may use laptop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 (1) The Laptop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the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Submit To

Rev. Joseph Y. Kim
Address : 2908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18
Cell : 213-215-8523 E-mail : laredeemer@gmail.com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Chair of the Exam Committee Rev. David H. Park (917) 254-0887 heepark91@gmail.com
- Clerk of the Exam Committee Rev. Joseph Y. Kim 213-215-8523 laredeemer@gmail.com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회장 : 김성국 목사
서기 : 유진상 목사
고시부부장 : 박희근 목사
고시부서기 : 김요섭 목사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날 연보(Day-Offering)를 드렸던 우리 선배들...

한국 교회사를 읽는 중에 보기에 생소한 '날 연보'라는 말이 시선이 멈췄습니다. 복음을 믿고 새 생명을 받아 변화를 받은 성도들이 물질로 헌금할 형편들이 되지 않았을 때... 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앞으로 며칠 간을 날 연보를 작정합니다.'

제출하면 교회는 이를 모아 통계를 내어 기도하고 큰 열매가 맺히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날 연보' 제도는 1904년 11월 북장로회 선교 구역인 평북 주로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앞으로 며칠 간을 날 연보를 작정합니다.'

일을, 의주 교인들은 524일을, 강계 교인들은 720일을 날 연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년 사이에 이 '날 연보' 헌신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던 곳곳마다 집회 마지막 날에는 의례적으로 성회 감사헌금 대신에 시간을 바치는 날 연보 헌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총 1천

일을, 의주 교인들은 524일을, 강계 교인들은 720일을 날 연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년 사이에 이 '날 연보' 헌신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던 곳곳마다 집회 마지막 날에는 의례적으로 성회 감사헌금 대신에 시간을 바치는 날 연보 헌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총 1천

일을 바치는 교회도 있었는데 진남포에서는 어느 부인 성도가 1년 중 6개월을 전도하는 일에 바치겠다고 서약했다고 합니다. 이런 날 연보 헌신이 '백만 구령 운동'의 큰 역할을 제공했습니다. 1910년 한 해 동안에 바쳐진 날 연보가 10만 일을 넘었는데 계산해 보면 274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헌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날 연보를 작정한 성도들은 매서인들이나 전도 부인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무급으로, 자비량으로 헌신하여 평소에 가보지 못한 산간지역들과 외딴 곳까지 찾아가서 쪽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기도초소를 만들고 훗날에는 그 지역에서 교회로 성장하는 예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의 날 연보가 아프리카 선교사들에게도 알려져서 많은 효과를 보게 되었는데 평양 신학교 교장이었던 마켓 선교사의 보고서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편

흑인교회에서 조선교회 성도들의 날 연보 소문을 듣고 이것을 모방하여 암놀 교회에서는 교우들이 날 연보 한 일수가 3,465일이요, 풀린 교회에서는 5,995일을 전도하기로 작정하여 신입교인들이 229명이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 전에 서울의 신반포 아파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대청소의 날을 정하고 전 교인들의 참여를 광고했습니다. 정작 그 날이 되었을 때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는데 청소하러 나온 사람들은 집사, 권사들이 아닌...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모님들을 대신해서 파출부들로 교회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웃어야 할지? 고무적인 점점으로 받아드려야 할지? 잘 분별이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 극도로 '시간이 돈'이라는 관념이 굳어진 산업화 시대입니다. 직장도 시급으로, 일당으로 계산 되는 현실에서 시간을 드리고 날을 드린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

렵고 힘든 것이기에 가장 귀한 우리들에게 주신 날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날 연보'로 본을 남겨준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선배들을 따라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필자가 잘 아는 젊은이는 20살 때에 솔로몬의 일천 번째에서 힌트를 얻어 한 해 동안 예배당에 나가 일천 번 기도하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매일 새벽기도회와 오후에 또 한 번의 교회당 기도, 주일 낮과 밤, 수요기도회, 금요 찬양대 기도회, 토요일 청년회 기도회에 꼬박 꼬박 나가서 모두 990번 플러스 덤으로 10번 더 ... 정확한 '천일 날 기도 번째'를 바치면서 그 날 이후 오늘날까지 57년을 이어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가 대세인 현대 성도들이 이제에 헌금 봉헌도 귀하지만 어쩌면 이보다 더 귀한 '날 연보'로 본이 되었던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의 뒤를 따라가는 시대가 회복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려야 하겠습니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백승철 목사
(사모하는교회 담임)



이다. 생각, 바람처럼 흩 지나갈 수 있습니다. 생각, 그 바람소리를 듣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생각, 아주 잠시 느린 걸음으로 한 발 자국만 더 걸어 보십시오. 생각, 모서리에서 미끄러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롬 14:8). 이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그 지점까지 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각의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마음으로 온

니다. 여기에 세상의 가치, 정신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머리에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 시야에 들어온다면 분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온갖 포장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애, 평등, 평화, 차별금지법, 인간존중과 같은 무기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런 주장이 황당하게 들리지 않을 뿐 더러 하나 같이 설득력 있는 범규 조항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됩니다. 세상의 생각과 일치되는 지점에서만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진리 문제는 개인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를테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논제는, "그릴 수 없다." 모든 종교에도 나름 구원이 있으며 서로 다른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판단 기준입니다. 동성애가 "죄가 되느냐, 아니냐?"는 논쟁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로울 평등의 가치 기준이 성경의 말씀 위를 선점한지 오래입니다. 성경과 세상이 충돌을 일으킬 때 세상은 언제나 인간의 존재론적 가치 기준으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분별지 말라"고 단언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보려는 권명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급변해도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아닙니다. 세상 흐름에 맞게 왜 아니냐를 따진다면,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상의 모든 교회와 신앙인이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변화된 성도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뚜렷한 현상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입증, 인정, 증명하려는 뜻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는 해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증명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즉 처음과 끝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는 작품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쁨을 신앙인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 완전합니다. 빈틈이 없습니다. 차고 넘치는 온전한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 사람입니다. 생각의 변화를 늘 조심히 살피십시오. 신앙인은 세상의 복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복제되지 않도록 순간마다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입증되는 축복을 경험하십시오.

usaep@hanmail.net

것에 대해 이미 말씀하신 생각에서 실패했습니다. 아쉬움이 큼니다. 베드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정한다는 예고된 말씀을 생각했다라면 뒤집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답하는 것이 당연

마음과 거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엇갈릴 때 베드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마음 편치 않았습니.

늘 상 월마트 앞에서 보던 노숙자 흑인 아저씨가 프로즌 요구르트 옆 판다 익스프레스 식

변화 TRANSFORM

로마서 12:2



통 빈틈없어야 할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은 하나님으로 인해 본질이 바뀐 새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받은 성도는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당연히 이 시대를 읽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다시 한 번 로마서 12장 2절을 정독하십시오. "이 세대를 분별지 말라"는 것을 영어성경(NLT)은 "복사(copy)하지 말라"고 했으며 또 다른 영어성경(KJV, NIV, NASB)은 conform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세상의 규칙, 관습, 법을 따르지 말라"고 번역했습

세상 가치기준으로 성경은 골동품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을 분별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필자의 저서 <염서>에 글을 썼던 엘리스 앤 베일리의 10가지 계획(Alice Ann Bailey's 10 point plan)을 참고하시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염서, 백승철, 영문출판사, PP126-135).

요즘 세상의 관점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중요한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진리 문제를 따르지 말라"고 번역했습

한 논리입니다. 부정적으로 예측된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예라고 응답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예고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끄집어내는 생각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생각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갈등의 구조에서 늘 하나님 편으로 생각을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에서 결정된 행위가 마음 편치 않다면 그것은 거의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 사람을 성도, 본질이 바뀐 새사람입니다. 궁극한 것은 그렇다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by the renewing of your mind"(롬 12:2).

여기서 마음은 '생각'입니다. 즉 변화된 사람은 생각하는 관점이 새로워집니다. 생각의 변화입니다. 변화되기 전 가치 기준으로 삼았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판단, 행동, 감정이 하나님에게 정 조준되는 변화입니다. 생각은 시 공간을 초월할 뿐 아니라 과거와 미래까지 넘나드는 폭 넓은 영역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몸은 여기 미국에 있는데 생각은 한국에 가 있어 공간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왕이 되기도 하며 집 없는 노숙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죽고 살리기도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어린 시절로 시간을 거꾸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생각이 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아침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온통 생각의 숲을 헤집고 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골프를 치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갈등도 생각으로 결정됩니다. 생각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에 신앙적 갈등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에 관여하고 있다는 단편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변화된 성도의 생각으로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성도는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늘 관찰하십시오.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 말씀의 기초 위에서 적용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하나님 예배, 지식의 근본

시대가 변해도, 불변하는 교육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1:7a)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2세들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이다. 교회 교육기관도 복잡할 이유가 없다. 본질이 분명하면, 나머지 커리큘럼은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이 드러내는 목표의 선명성이 상실되면, 여러 가지 화려한 교육 방법들도 길만 화려한 잔치상 처럼 될 뿐이고, 열매없는 결론만 얻게 될 뿐이다.

교육기관들이 다양한 목표를 제시하지만, 성경적인 교회 교육의 본질은 다음 세가지로 모아진다 하겠다. "예배 잘 드리는 아이가 되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꿈과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는 것"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의 비전을 말하면서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을 본다. 연령적으로 젊은 사역자를 선호하고, 반짝 반짝 이벤트 아이디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눈높이 교육과

회복을 통해 교회로 돌아와서 고백하는 말이 은혜가 되었다.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켜 주었다."는 고백이다.

누가 누구를 가르쳐, 한 사람, 한 영혼을 온전케 할 수 있을까?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도 그 가르침이 한계가 있는데, 달리 방법이 없다. 원 소유주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영혼에 말씀하시는 방법외에는 최선의 길이 없다. 그것이 예배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만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쳐낼 뿐이고, 열매없는 결론만 얻게 될 뿐이다.

2. 교회 중심의 자녀

어린 아이가 곧장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아주 드물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달라고 할 때, 무엇을 보여주면 그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 만

자들 앞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죄 많은 인생의 회복을 가장 권위있게 말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교회생활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예배생활이 온전치 못한 사람,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그 신실하심을 중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런 죄 많은 인생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가장 권위있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교회이다. 그렇게 믿고 교회에 나오면, 그때 비로소 회복이 이루어진다. 교회는 회복의 처소이다. 어린아이로부터 이것을 가르친다면, 힘든 세상에서 방황할 때에도, 반드시 넘어져도 교회쪽으로 넘어지면서, 주의 교회를 향해 선한 발걸음으로 찾아올 것이다.

3. 말씀의 종들에 대한 순종

훗날, 어디를 가든지, 결국 우리 자녀들도 한 교회를 섬기며, 한 사람의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울 것이다. 바로 그때,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님의 은혜와 응답, 기적같은 능력들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우리 자손들에게 생겨나질 않도록 믿음의 유산들을 계속해서 증거해야 한다. 믿음의 세대가 끊기지 않게 기도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 믿음의 조상들을 언급하므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똑같이 기대하며 소망하는 신앙적인 사명을 일깨워주어야 한다. 이민 교회의 문제를 본(本)이 없어서 그렇다고 진단하는 말들을 듣는다. 짧은 역사와 전통, 게다가 가족 단위의 생활 패턴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킨 탓에, 작은 문제도 공동체의 유익보다는 개인을 먼저 생각하기에 문제가 쉽없이 폭발하며 드러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대의 이민교회 개척과 헌신적인 사랑, 1.5세와 2세대의 교육적인 환경의 풍요로움들은 큰 은혜와 축복인줄로 믿고 자신감있게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에 대해 말하고 권고해야 한다. 자녀 세대는 부모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목사님, 저희 교회 목사님은 올해부터 구역조직과 같은 셀교회를 여러 개 만들어 소그룹 모임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왜 필요한지요? 셀교회와 같은 구역 소그룹의 필요성과 성경적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 실비치에서 이집사

구역 셀교회 모임

A: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2가지 그룹이 있었습니다. 행 2:46을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즉 주일에 모이는 성전 예배가 있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로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Temple Ministry 에서 회중 집회, 오늘날 주일 대예배로서 대그룹이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House to House Ministry 로서 구역모임, 셀교회(Cell Church)를 말합니다. 이것은 소그룹(Small Group)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대예배는 설교자의 설교가 중심이 되는 예배라면 소그룹은 친교와 사랑의 교제와 기도모임이 중심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성도끼리의 친교나 교제가 안되기에 구역에서 셀교회로 모여 삶을 서로 나눌 때 위로받고 치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구역 셀목장을 통해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성도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교회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집니다. 저는 제자훈련의 역동성과 구역 셀교회로 2003년 풀러 신학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이민목회를 40년 이상을 하면서 구역조직과 구역셀 목사 훈련을 오래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구역 셀교회는 교인들을 하나로 묶고 교회 지체들간의 단합과 교제를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과거 중국이 1966년에서 1976년까지 마오쩌둥이 문화혁명(Cultural Revolution)으로 홍위병을 동원하여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고 교회 지도자인 목사를 죽이고 옥에 가두고 교회당에 못 짚을 하며 기독교를 씨도 없이 없애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공산당원들은 이제 교회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비밀리에 가정에서 모여 집회를 가졌습니다. 1976년에 마오쩌둥은 죽었습니다. 문화혁명 10년이 흘러갔을 때에 사실 중국 교회는 경제도 지체되고 세계 13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화혁명 10년이 지나고 등사오핑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중국이 개혁개방의 정책을 펴고 핍박했던 기독교회에도 이전 어느 정도 자유를 주었습니다. 10년 이상 문화혁명 때에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교회가 뚜껑을 열자 기독교인 숫자가 5천만 명으로 숫자가 오히려 그전보다 30배로 증가했던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통해 더 무섭게 부흥한 것입니다. 불은 바람이 불면 더 퍼진다는 말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핍박의 바람이 불자 중국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지하교회로 전환된 것입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셀교회로 모여 가정교회 지도자가 설교하고 성경공부를 하고 친교하며 찬송을 인도하였습니다. 구역 셀교회는 작은 교회이며 셀목자는 셀교회의 목자와 같이 셀원들을 돌보고 심방하고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셀목자와 셀총무는 함께 구역원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려야 할 사항이 있으면 담임목사에게 알려 심방토록 해야 합니다. 셀목자는 독수리 같은 눈으로 구역원들을 쫓고 살피야 합니다.

5. 영재 (영적재목)로 양육

똑똑한 세상의 영재(genius)를 말함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일꾼,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재목들이 되라는 뜻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앞에 갈 때에, 그가 이 땅에 가지고 있던 타이틀이 중요한 것 아니다. 세상의 노벨상을 받을 만큼 똑똑하다 하여도, 그 일로 인해 주님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다면, 오히려 책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 장관, 유명인사, 이런 타이틀만으로는 칭찬을 얻지 못한다. 자기 영광일 따름이다.

당신은 세상에서 주어진 그 일을 통해서, 주신 직분을 통해서, 얼마나 영혼에 영향을 끼치며, 얼마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했느냐?를 물으실 따름이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삶이라면,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재목인 것이다. 하나님 교회에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Worship & Education 2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배, 교회, 헌신-

더불어, 세대통합예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어쩌든지 다음세대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세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본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가운데 '예배'에 초점 맞추는 경우는 비례적으로 별로 없는 것을 본다. 예배는 늘 드리는 것이라고 상상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배는 남녀노소 성도의 본업(本業)이며 본질(本質)이다. 본질에서 벗어나면 변질하게 되고, 좋은 향기가 아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을 본다. 입술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본 교회에서는 늘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다음세대 세가지 교육목표에 한 마음이 될 것을 강조한다. 더불어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다. 본 교회에 제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다음 세대가 세상을 이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참조가 되었으면 한다.

1. 목숨같은 주일성수

예배자로 양육하기 위한 첫 번째 강조점은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날은 너의 날이 아니다. 이날은 주님의 날이다. 이날은 세상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야된다. 전날 어떤 천지가 개벽할 일이 있더라도, 아침에 해가 뜨고 주일이 되었으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세상길에 방황하던 어떤 이가 신앙의

나도록 해야 한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기까지, 주의 성전에 Temple Boy로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 주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주의 성전에 오래도록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굳이 교회에 갈 필요성을 못 느끼는 이들이 많아졌고, 그 영적영향력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다. 그때 다시 회복할 것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교회로 나오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넘어져도 교회로 넘어지도록 애를 써야 한다. 제일 좋은 것 하나는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유치원도 주일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선교원을 다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회중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오늘날 성령받고 말씀받고 삶이 변화되는 곳이 어디인가? 기도원인가. 멋진 치유센터인가? 기도원도 될 수 있고, 수양관도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다. 말씀받고 성령받고, 인생이 변화를 맞이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장소는 하나님의 교회이다.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다. 그때 너희가 "성령받고 권능받고 증인된 삶"을 산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그래서 저들 삶의 중심이 교회라는 처소가 될 때,

에게 칭찬을 받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특히, 목회자의 자녀라면, 결코 사고몽치가 되어 교회를 분란케 하는 이들은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자녀들, 사랑받는 아들과 딸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을 담대히 가르쳐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 교회와 문화가 활발해졌다. 전화기를 통해 몇 분의 목회자를 통해, 말씀을 듣는 지 종잡을 수 없다. 결국, 기준없이 자신의 호불호를 따르 선택으로, 하나님앞에서 아름다운 변화를 보기 어려워졌다. 운명적인 말씀으로 대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주일 예배에 드러지는 말씀이, 내 영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할 때, 말씀의 스피커로서의 목회자에 대한 존중은 너무 중요하다. 이를 자녀세대에 잘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막힘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4. 부모세대가 본(本)으로 책임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기억하게 해주어야 한다. 1세들이 교회를 생각하며 새벽을 깨우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가르쳐주어야 한다. 삶을 헌신했던 열정과 이것으로 인해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

백돌 한 장이라도 없을 수 있는 삶이 귀한 것이다.

다섯가지 신앙교육의 구체적 강조점을 적어보았다. 예배를 위한 주일성수, 교회중심의 아기로 키우기, 말씀전하는 주의 종들에 대한 존중, 부모님들의 신앙의 본(本),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재목이 되는 것에 초점맞춘 것을 적었다. 누가 하나님의 거룩을 풍성히 맛보게 할까? 사막광야같은 이민 땅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들, 정한 시간, 정한 장소인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거룩하신 하늘의 하나님을 충만하게 맞볼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davidnjon@yahoo.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어른

국어사전에서는 어른을 '다 자란 사람'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자랐다는 의미는 몸 즉 신체가 자란 것을 나타낸다.

한국에서 '어른 김장하'라는 다크가 만들어져 극장에서 상영이 되며 인터넷에도 소개가 되고 있다. 왜 굳이 '어른'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을까? 어른을 사전이 설명하는 대로 신체가 다 자란 사람 모두를 나타내고 있다면 이는 특별한 누군가만을 지칭해서는 안 될 것인데도 말이다.

'어른 김장하'라는 다크를 보면서 나는 먼저 한없이 부끄러웠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으로 창조되었고, 이를 전하고 가르쳐야 될 목사요 선교사며 성도인 나를 그와 비춰보니 '너,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하는 자각과 자책이 나를 때렸

다. '어른 김장하'를 소개한 기자는 오랫동안 이 시대의 악인들을 찾아내 정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그 일에 몰두했

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점점 더 악화되더라고 했다. 그러다 문득 어둠을 헤치기보다는 빛을 드러내는 것이 어떠랴 싶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시대의 의인(?)을 찾아 암울한 세상을 비춰보려 했다. 그 중 한 분이 '김장하'란다. 내가 영상으로 본 그분 김장하는 꼭 성경에서 묘사한 우리 구주 예수님과 비슷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

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흙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 53:2). 체구도 왜소했고 걷는 것도 당당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컸다. 신체가 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컸다. 그는 수십 년 동안의 선행을 소개하려는 수많은 인터뷰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그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온 듯하다. 다크가 만들어진 것도 인터뷰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둔 세상을 밝은 빛으로 밝히려는 기자의 집념으로 기록하고 편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른 김장하'의 종교는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분이 성경을 아는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그분을 소개한 기록을 보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면 그분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울림으로 먹먹했다.

그는 자신은 호의호식하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평생 차를 한 번도 소유하지 않았고 보기에 굵이 거의 닳아 편해 보이는 구두를 신고 조미토끼 걸이 다녔다. 그럼에도 수백여이 넘는 학교를 정부에 기증하고 권력이나 친족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으로 당당했다. 그의 장학금을 받아 공부를 했으

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들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를 고백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닮음이 없어 보였다.

자신보다 남을 위하여 남의 잘못에 아낌없이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마음을 지니고있는 사람이 어른이 아닐까 싶다. 신체는 커졌으나 사람다움을 간과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다. 내 것은 내 것, 네 것

네와 작은 자들을 대접함에 인색하지 않은 그분의 일생을 보면서 소품과 고모라 성보다 더 값은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대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이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2024년 새해가 밝았다. 교회와 성도들이 표어와 목표를 어떻게 정했을까가 궁금해진다. 거창한 계획을 세운 뒤 매년마다 수정하며 뒤로 미루기보다, 작은 하나라도 알찬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기쁨을 입어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시겠다는 그런 칭찬을 받는 새해였으면 좋겠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를 고백하며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주님의 두드리심에 문을 여는 한 해였으면 좋겠다.

새해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에서의 어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른으로 하나님의 기쁨심을 입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가족 손에 복음 접해... 교회 통해 신앙 다지는 미국

미국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접하는 연결고리는 대체로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앙을 확고하게 받아들이는 계기를 제공하는 주체는 교회였다. 가족이 복음의 씨앗을 심고, 교회 공동체가 물과 거름을 주며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다.



미 여론조사업체인 그레이 매터 리서치와 인피니티 컨셉츠가 최근 미 개신교인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10명 중 4명 정도(43%)가 자신이 신앙인이 된 주요 계기를 가족으로 꼽았다. 눈길을 끄는 건 이들 가운데 3명 가까이(28%)가 부모를 꼽았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전수하는 신앙교육과 함께 자라온 환경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부모에 이어 조부모 친척 형제자매 등 기타 가족 구성원(11%), 배우자(4%) 등의 순으로 신앙을 접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교회(16%), 성경묵상(10%), 개인적 어려움·고난(9%) 등이 신앙을 갖는 주요 계기인 것으로 조사됐다.

씩을 틈은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만드는 건 교회 역할이 컸다. '신앙인으로 서게 된 중요한 계기'에 대해 응답자들은 출석교회(60%·복수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부모(51%), 성경 묵상(46%), 목회자(39%), 기타 가족 구성원(32%), 개인적 어려움(23%), 친구(22%) 등 순이었다.

이밖에 미 기독교인의 72%는 성인(만 18세)이 되기 전 신앙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심을 체험한 평균연령은 만 15세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2~3학년 나이이다. 이어 5~9세(26%) 10~12세(24%) 등의 순이었다.

힌두 민족주의 정부 체제의 인도, 기독교인 박해 심화

힌두 민족주의 정부가 들어선 인도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심화하고 있다. 국제선교단체 미국 순교자의소리(VOM)은 인도를 기독교 예배와 전도를 제재하는 '제한된 국가'로 분류했다고 24일 밝혔다.



VOM이 최근 발간한 '2024년 세계 기도 안내서'에 따르면 인도 인구 중 약 2.3%에 해당하는 기독교인이 받는 탄압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VOM은 1997년부터 연례 기도 안내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 박해 국가나 지역을 분류하고 있으며 박해받는 이들을 위한 전 세계 기독교 공동체의 기도와 격려를 요청하고 있다.

인도는 2019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재선 후 기독교인을 제한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전국 12개주에서는 종교 개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VOM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성경을 나눠주거나 기도하는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장기간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심각한 차별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인도 힌두교도 메이테이족이 주도한 유희 사태로 기독교 공동체인 쿠키족 100여명이 살해됐고 수만 명의 신자가 피난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빈곤국 어린이 위해 10만끼 포장...美교회 '통큰 섬김'

전 세계 빈곤국 어린이를 위해 500여명 교인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틀에 걸쳐 포장된 음식의 양은 468박스(10만1088기 상당)에 달한다. 미 테네시주 남침례교단 크라이스트웨이교회가 지난 19일부터 20일(현지시간)까지 진행한 '밀패킹 행사'다.



크라이스트웨이교회는 기독교 비영리단체 '피드마이스타빙칠드런(Feed My Starving Children·FMSC)'과 협업해 전 세계 굶주리는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만 5세 이상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다. 크라이스트웨이교회는 최근 SNS를 통해 "이틀간 포장된 음식은 276명의 아이들이 1년간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이다"라며 "주말임에도 시간 내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주신 봉사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앤지 워터스 크라이스트웨이교회 미션 코디네이터는 최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영양 성분을 고려해 담양기에 굶주린 빈곤국 아이들에게 훌륭한 영양식이다"라며 "교회와 각종 채소와 곡물을 담아 포장해 보내면 현지에선 이에 물을 넣고 수프처럼 끓여 먹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포장된 음식은 아이티 뉴질랜드 필리핀 등 전 세계 111개국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바이든 "난민 물리면 국경 폐쇄" ... 강경 이민정책으로 급선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난민이 급증할 경우 국경을 단절하며 관련 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불법 이민자 급증으로 국경 안보 문제가 대선 의 핵심 의제로 등장하자 강경 이민정책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도인 컬럼비아 유세에서 "두 달 전 나의 팀은 양당 상원의원 그룹과 협력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국경 보호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며 "이 법안은 나에게 국경을 폐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긴급권한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당적 법안은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고치고, 미국에 있어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성명에서도 "오랫동안 우리 모두는 국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고칠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상원에서 협상 중인 국경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은 국경이 (난민들로) 압도될 때 대통령으로서 국경을 폐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상 권한을 부여한다"며 "만약 그 권한이 주어진다면 나는 법안에 서명하는 날 이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상원이 협상 중인 법안은 5일 평균 불법 월경이 5000건에 달할 때 효력이 발생하고,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에게 대한 대부분의 난민 심사가 중단된다. 불법 월경이 3750건 아래로 떨어지면 권한이 중단된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포괄적 안보 예산 패키지를 통과시키는 대가로 이 같은 내용의 국경 강화 법안을 제시했다. CNN은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지지자 그룹과 충돌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국경 문제에) 더 강력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WP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으로서 놀라운 변화"라며 "남부 국경 및 이민자 관리는 여론조사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고, 트럼프의 강점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날 네바다주 유세에서 자신은 법안 없이도 국경을 폐쇄했다면서 재선에 성공하면 국경 폐쇄명령 대신 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셜미디어를 통해선 "미국 국경은 세계 역사상 최악"이라며 "테러리스트들이 전 세계에서 아무런 확인 없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고,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테러 공격이 일어날 확률은 100%"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했던 국경 장벽 건설을 바이든 대통령이 중단시키고 유화적인 이민정책

을 펴는 데 대한 비판이다.

"꼭 열심히 해야 돼요?" 美 근로자 절반 '업무 최소화'

일할 때 업무에 드는 노력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를 하고 있는 근로자가 미국에서 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갤럽의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미국 정규직 및 시간제 근로자 가운데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인다'는 응답은 50%나 됐다. 나머지 16%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피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업무에 전념하고 있다'는 33%였다.

갤럽은 업무에 전념하지 않는다는 두 부류 응답자의 생산성 손실을 달러 가치로 환산한 뒤 전체 노동 인구에 대입했다. 지난해 미국의 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는 총 1억6000만명이었다.

그 결과 '조용한 퇴사'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1조9000억달러(약 253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계 경제에 미치는 총 피해액은 8조8000억달러(약 1경175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텔레파시' 현실화?...머스크 "인간 뇌에 처음으로 칩 이식"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뇌 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최초로 인간 뇌에 칩을 이식하는 임상 시험을 마쳤다. 머스크는 29일 자신의 엑스에 "어제(28일) 첫 환자가 칩 이식 수술을 받았다"며 "환자는 잘 회복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뉴럴링크의 첫 제품은 텔레파시"라며 "단지 생각만으로 당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는 물론 거의 모든 기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초기 사용자는 팔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며 "스티븐 호킹이 속기사나 경매인보다 더 빠르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상상해 보라. 그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앞서 머스크의 뉴럴링크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칩 이식 임상시험을 승인받았다. 또 같은 해 9월부터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했다. 머스크의 목표는 칩 이식을 통해 인간 뇌가 컴퓨터와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눈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사람이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클린제일교회)

존 오웬(John Owen)의 기도에서 성령의 사역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Prayer) 제 8장 영적인 선물로서의 외적인 기도에 대한 설명과 방어 (3)

3. 기도의 의무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것이 될 수 없음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논쟁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그로 우리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한나처럼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지만(삼상 1:13), 명상으로 하는 기도조차도 지성으로 이루어진 기도의 내용들이 감정을 통해 표현되고 있는 것이므로, 표현되지 않고 머리로만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나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녀가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고뇌하는 것들이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로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삼상 1:16). 한나는 자신이 간구하고자 하는 바를 조용히 표현하고 있었다.



역사나 은사 또한 이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은 바로 말을 통해 설교나 기도로 표현되어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때때로 다른 때보다 기도하고자 하는 것을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령은 자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생각을 불러넣기도 하고, 움직이도록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습관적인 은혜로 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불러일으켜서 실질적으로 기도하고자 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가진 소원을 바로 표현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이 의무를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빌립보서에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 4:6)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나 소명에 합당한 일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대화를 하는 것

과 같은 온갖 종류의 의무를 감당하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소리를 내어 기도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목사들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소리를 내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감사하는 일을 해야 한다(딤후 2:1). 사도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는 것은 목회자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다(행 6:4). 목사가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선한 은사들' 중의 하나이다(약 1:17). 목사들은 이런 은사들을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것이다. 기도하고 설교할 때 이런 영적인 능력이 목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는 그 어떤 사역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제대로 행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이나 가족, 또 모임 속에서 이 은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큰 유익이 된다.

yoonsuklee@hotmail.com



변명혜 박사 (아주사피서피크대학교 교수)

말씀이 이끄는 삶

1. 올해 첫 날을 세도나에서 맞았다. 한국에서 온 언니와 형부가 귀국하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한 짧은 여행이었다. 새해 첫날 해 뜨는 광경을 본다고 일찌감치 숙소를 나섰다. 한 달 동안 계속 대가족이 어울려 지내느라 조용한 개인 시간이 그리웠던 내 마음을 딸아이가 알았는지 "우리 새해 첫날이 니가 각자 묵상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요"라고 반가운 제안을 했다. 삼십 분 정도 모두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이른 새벽이어서 바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캄캄했다. 산길이기도 하고 군데군데 있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서 당연히 발을 비춰줄 빛이 필요했다. 셀폰에 있는 flashlight를 의지해서 조심스럽게 걸었다. 캄캄한 길을 비추는 flashlight를 고마워하면서 걷는데 시련의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왔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삶에 많은 변화를 맞고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해 메시지가였다. 한 길을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앞길을 알 수 없는 나의 삶을 인도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임을 상기시키셨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말씀을 내 발에 등, 내 길에 빛으로 삼고 하루하루를 묵상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 때 하나님께서 등이 되시고 빛이 되셔서 새로운 한 해를 지켜 주실 것임을 말씀하셨다.

2. 산 정복쯤 올라가니까 어둠을 뚫고 새벽이 다가오면서 산의 능선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 속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산들이 떠오르는 아침 햇빛 속에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산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는데 어둠에 묻혀 보이지 않았을 뿐이다. 우리의 앞날도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볼 수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앞 날도 아름답게 그 형체를 드러낼 것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삶의 전환기 속에 새해를 맞이하지만 이미 주님이 계획하신 미래임을 기억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아시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해 나가지만 하면 그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3. 세도나를 떠나던 날 새벽에 한 번 더 가까운 산에 올랐다. 뒤에서 따라오는 언니를 위해 셀폰을 앞뒤로 흔들며 내 앞과 언니 발 앞을 밝혀주었다. 앞뒤로 손을 흔들며 가다가 앞서가는 사람의 안내자 역할을 생각했다.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식 때면 부르던 "빛 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라는 노래가 있다. 2절은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며'라는 가사로 시작된다. 누구든지 앞서가는 사람은 뒤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인 동시에 좋지 못한 모습인 우리 삶의 발걸음은 뒤따르는 사람에게 보이게 되어 있다. 인생의 앞길을 걷는 사람은 뒤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삶의 선배의 역할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모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나도 어느새 육십 중반을 넘어 이제 노년기라는 단어가 생소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나의 노년기도 잘 준비해야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노년기를 은혜롭게 맞이하고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노년기 준비 중 하나는 앞서 인생을 걸어 온 사람으로서 체득한 지혜를 뒤를 따르는 세대의 앞길을 비추는 데 사용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한 좋은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후대들이 평탄한 삶을 맞이하기를 바라지만 삶의 어려움이 온다 해도 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본을 보이는 노년이 되기를 꿈꾼다. 그러기 위해 빛으로 다가오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매일 배부르게 잘 받아먹고 꼭꼭 씹어서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풍성한 한 해를 보내고자 한다.

lpyun@apu.edu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Hawaii, and Mexico.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그립스 천문대 등산 코스로 올라가는 사람, 아니면 체조하거나 베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테

니스 코트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는 친구 분들과 커피를 마시며 담소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맥도날드로 가십니다. 그런데 새벽에 산이나 운동장이나 레

스토랑이 아닌 교회로 가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하루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시작하여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주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온 성도님들은 신령한 영의 양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육의 양식도 공급받게 됩니다.

새벽기도회가 마치고 나면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이 자신의 기쁜일이라든지, 축복을 나누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을 초청하여 아침 식사를 대접합니다. 기도의 동역자인 장로님께서 자신의 85세 생신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을 대접하고 싶어서 미국 식당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각자 개인 기도를 마치고 참석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장로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 미국 식당으로 갔습니다. 장수의 축복을 받으신 장로님을 축하하며 서로 즐겁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지고, 식당을 나서는데 식당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는 직원 한 명이 제게 인사를 합니다. 이 직원은 에티오피아에서 이민 온 분으로 에티오피아 교회에 다니는 성도입니다. 모처럼 만났는데 반가운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묻습니다. 서로 짧은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고 식당을 나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분을 내가 언제 처음으로 만났는지? 벌써 21년 전이네.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 직원을 지금의 미국 식당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은 21년 전입니다. 이 분은 21년째 한 직장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습니

다. 21년 동안 웨이트리스로 일하면서 별의 별 손님을 다 만났을 것이고, 그만두고 싶은 일을 겪은 일도 한 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여전히 이른 아침 시간에 웨이트리스로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존경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고마운 분이나 기억에 남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너무 깊은 인상을 남긴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추억을 회상하며 찾아갔는데 여전히 그곳에 같은 모습으로 있던지, 아니면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찾아왔을 때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있다면, 나는 성공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성공자의 모습도 같다고 봅니다. 신앙에 성공한 성도는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세월에 흘러 누군가 찾아와도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섬김을 꾸준히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알았던 사람이 나를 기억하며 언제 어느 때든지 찾아와도 만날 수 있는 성도는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며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yostrupois@gmail.com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자기 위로의 위험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우리는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훈련된 전문가로부터 받는 치료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방송하는 비전문가로 가득 찬 생태계, The Atlantic이 “치료 미디어”라고 부르는 세계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형성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불안 장애에 대한 정보를 너무 많이 접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겪는 문제까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징후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각종 명칭한 진단과 단순한 해결책을 고려할 때, 틀린 말이 아니다.

자기 위로와 관계 붕괴

온라인 치료를 실제 관계에 적용하려는 시도보다 이 문제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도 없다. Wired 칼럼은 당신이 소셜 미디어의 세계가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동체라는 환상에 어떻게 빠져드는지를 설명한다. 정체성 그리고 당신의 느낌이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과도한 자기 만족에 빠지기 마련이며, 그런 종종 타인과의 관계에까지 해를 끼친다. 그러므로 대중 수준으로 격화된 치료의 결과로 일어나는 관계 붕괴를 목격하는 건 놀랍지 않다. 나아가서 대인 관계에서 긴장도를 높이고 모든 상호작용에서 위기를 초래한다는 의심까지 하게 된다.

“그녀가 하는 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에요. 당신을 지금 가 스퀘어티팅하고 있어요.”

“단지 사람만 틀린 게 아니에요. 그의 견해가 해로운 겁니다.”

“당신이 굳이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지 않는 건, 그가 틀림없이 여성혐오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녀가 당신하고 어울리지 않는 건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에요.”

“상사가 ‘당신은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 말은 사실상 ‘당신은 우려펴다가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안정감을 주는 온라인 세계에만 갇혀서 끊임없이 자신의 관점을 검증하는 사람은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왜곡되고 해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기 쉽다. 갈등이 생기거나 힘든 대화를 해야 할 경우를 만나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 사람을 비난부터 하기 쉽다. 상대가 당신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만을 옹호하는 경우에 그 태도는 당신 눈에 자기애에 빠진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 상대로부터 아무런 반발이 없어야, 당신이 옳았

다는 의미가 된다.

자기 위로와 의심

이러한 조건에서 관계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모든 불일치나 갈등이 누군가가 권력을 행사하거나 통제력을 유지하는 방법의 결과라는 의식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이 이뤄질 리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숨은 동기를 갖고 있다고?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더 나은 무언가를 열망하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게다가 이와 같은 진단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물론, 분석이 사실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당신을 덮치려는 상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인종차별주의자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기사나 밈, 소셜 미디어 전문가가 어떻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을까? 모든 상황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치료 언어는 도움은커녕 해를 줄 뿐이다. 모든 경우를 똑같이 평면화해버린다.

더 나쁜 것은, 소셜 미디어 자체 검증은 나쁜 행동마저도 선의의 표시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태도나 행동, 그래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할 대상이 도리어 당신의 선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둔갑한다. 당신은 완고하고 고집이 센가? 전혀 아니다. 단지 당신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 앞에서 굳건하게 버텼을 뿐이다. 당신은 교활하고 음흉한가? 아니다. 관계 탐색에 있어서 당신은 누구보다 영리하기에, 누구도 당신을 가지고 놀 수 없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고 항상 불안한가? 무슨 소리인가? 전혀 아니다. 당신은 단지 개인적인 모욕과 주변의 불공정한 분위기에 올바르게 적응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온라인 치료 크라우드 소싱의 가장 큰 문제이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다 타인의 불의와 죄, 그리고 이기심 탓으로 돌리며, 그것들이 당신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아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당신을 위로한다. 같은 비판에 괴로움을 느끼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을 느낄수록, 당신은 공동체에 참여한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당신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을 뿐이다.

자기 위로와 외로움의 감옥

Wired는 또한 내가 작년에 언급했던 문제, 즉 “트라우마”와 “학대”와 같은 언어에 일어나는 희석 현상을 지적했다. 한 때 정신 건강 커뮤니티에서 쓰이던 단어가 이제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적용된다. 직원과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상사가 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나

는 지금 힘듭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내 감정이 상했기에 상사는 내게 학대자인 것이다. 또는 스트레스를 느끼기에 내 직업을 나를 “자극”하는 유해 장소가 되는 것이다. Wired는 이렇게 말한다.

정상적인 인간 갈등과 불일치를 훨씬 더 복잡할 것, 즉 학대, 정신병, 임상적 나르시즘으로 병리화하기 쉽다. 이런 식의 단어를 씬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을 저주하는 건 매우 쉽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갈등을 해결하거나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신 결국 벽을 쌓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당신은 전보다 더 외로워질 것이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있는 곳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킨다는 생각에 벽을 쌓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지켜주는 그곳이 감옥인 셈이다. 이 모든 것이 진짜 커뮤니티를 죽인다. 갈등 없는 긴밀한 공동체란 불가능하다. 그 어떤 불일치나 갈등 없이 유지되는 공동체는 사실상 가장 천박하고 피상적인 우정으로 이뤄진 곳이다.

자기 위로와 교회

이 모든 이야기는 그럼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더불어 사는 삶에서 분회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짐을 지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더욱이 때때로 형제 자매, 그들의 존재가 짐이 되기도 한다. 그때야말로 당신은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다. 형제가 당신의 짐이 되어도 여전히 당신은 그 곁에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단순히 조종당하는 대상으로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으셨다. 우리도 똑같이 해야만 한다. 무엇보다 치료 대화로 이어지는 디지털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대화와 갈등 속에서 드러나는 디지털의 함정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참된 기독교 공동체는 누군가의 감정이 항상 옳아야 한다거나, 무언가가 항상 객관적인 진실로 여겨져야 한다는 생각과 공존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체형 또는 개인의 특성과 동의어인 “나의 진실” 또는 “당신의 진실”을 주장한다면, 우리는 결코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성경에 호소하지 않는 한, 다른 신자들의 지혜와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오늘날의 치료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깊은 진리로 나아가 방법을 찾지 않는 한, 그리고 죄와 회개, 용서와 화해, 수용과 열망을 추구하지 않는 한, 교회가 아무리 살아있는 공동체를 약속하더라도 사람들은 결국에 고립을 초래하는 피상적인 온라인 세계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by Trevin Wax, TGC



성경, 빅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정명 목사, 김인식 목사, 임윤택 박사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LA성경, 빅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 연다 2월26일(월)과 27일(화) 또감사선교교회

‘성경 빅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가 오는 2월26일(월)과 27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또감사선교교회(담임 최경욱 목사)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강남회관에서 1월30일(화) 오전 11시에 열렸다. 목회자, 선교사, 사모, 전도사, 신학생들이 대상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 강사는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원로, 전 KPCA 총회장). 김인식 목사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2만 명 이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른 신학과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며 “목회자들이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보

고 말씀을 전해야 성경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진행해온 세미나에는 다양한 신학적 배경을 가진 목회자들이 참석했으며 강의내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었다”며 “성경을 볼 때 전체 흐름 속에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하나님의 빅 픽처를 보고 하나님의 비전과 전략과 계획과 의도와 방법을 알게 될 때 더욱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기

자회견에 참석한 송정명 목사는 “이스라엘에서 열기로 예정이 되었던 세미나가 전쟁으로 인해 연기가 되어 모처럼 LA에서 세미나를 갖게 되었다”고 말하며 “목회자들을 비롯한 목회 사역에 임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익할 것이고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은 풍성한 목회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인식 목사의 ‘성경 빅픽처를 보라’ 세미나는 포항기쁨의교회에서 지난 2021년 시작돼 2022년 10군데(이스라엘, 브라질, 몽골 등), 2023년 7곳(그중 교회는 2곳)에서 세미나를 했다. 이스라엘에서 열렸던 세미나에 참석했던 임윤택 박사(미주장신대학교)는 “흔히 세미나하면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하는데 김인식 목사의 세미나는 신선하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세미나였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오해와 왜곡된 편견을 벗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선교적 실천으로 이끌어주기에 충분한 세미나”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 신청 마감은 2월20일까지(신청수 50명)이며 등록비는 무료(점심 무료), 강의안(PDF)과 강사의 저서 ‘성경 빅픽처를 보라’가 증정된다. 자세한 것은 (818)825-1764, glovic(카톡 ID)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플라워마운드교회 창립25주년 기념주일예배에서 최승민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플라워마운드교회 창립 25주년 기념예배 “지역사회에 유명한 교회가 아닌 유익한 교회되길”

플라워마운드교회(담임 김경도 목사) 창립 25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1월 21일(주일) 예배시간에 가졌다. 김경도 목사는 “플라워마운드교회가 창립 25주년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다. 25년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많은 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있게 해주셨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1999년에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까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하며 “제 자신도 유명한 목사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유

익한 목사가 되기를 추구하고 교회도 지역사회에 유명한 교회가 아닌 유익한 교회가 되기 위해 애써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인되시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아래 우리의 모습이 다 감춰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이다. 우리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주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핸리안 집사가 기도, 성가대 찬양, 김경도 목사 인사말이 있은 후, 김영후 어린이, 단연우 어린이가 간증했다. 이어 ‘반석위에 세운교회(마 16:13-20)’라는 제목으로 최승민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영상취재)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동부교계 기사관

퀸즈장로교회, 2024 제직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월 2일(금)부터 2월 4일(주일)까지 본교회에서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로 이용걸 목사(필라 영생장로교회 원로)를 초청하여 2024년 제직수련회를 연다.

▲ 문의: 718-886-4040

뉴저지신학대학, 논문 작성법 특강

뉴저지신학대학은 2월 5일(월)부터 2월 6일(화)까지,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예수사랑교회에서 이윤석 박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논문 작성법 특강을 개최한다.

▲ 문의: 교학처장 김동욱 목사 516-241-6024

뉴욕장로교회, 누구나 선교특강 세미나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2월 10일(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박필준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하여 누구나 선교특강 세미나를 개최한다.

▲ 문의: 718-706-0100 newyorknypc@gmail.com

제7회 KAPC 목회와 신학 포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총회장 김성국 목사)의 제7회 KAPC 목회와 신학 포럼이 "이 시대 교회의 개혁과 부흥, 한국 복음주의의 새로운 리더들에게 듣는다"라는 주제로 이인호 목사(더사랑의교회 담임)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2월 12일(월)과 13일(화) 오후 7시부터 9시30분(미동부시간) 줌(ZOOM) 화상으로 진행된다.

▲ 문의: 박성일 목사 (spark@jubileekapc.org)

뉴욕총영사관, 뉴욕 현장민원 공지

뉴욕총영사관(총영사 김의환)은 2월 14일(수)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퀸즈한인회 사무실에서 현장민원이 진행된다. 민원업무를 위해서 퀸즈한인회에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주소: 163-07 Depot Rd, #B1, Flushing, NY 11358
▲ 문의: 646-467-3282, 646-320-2872

2024 필그림선교교회 썸머캠프 모집

필그림 선교교회(담임 양춘길 목사)는 2024년 썸머바이블캠프를 개최하며 등록을 받는다. PSBC 대상은 Kinder - 5th grader (수학과 영어, 예배와 다양한 Activity), PSBC+ 대상은 6th - 8th grader (수학과 영어 (Reading, Writing), SSAT와 ISEE, Musical, Art)으로 진행된다.

▲ 문의: 임효준 목사 psbc@njpmc.org



복합기 개강부흥회 후 학생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24년 봄 학기 개강부흥회 "복음이 이끄는 사명의 길"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는 2024년 봄학기 개강부흥회를 조진모 목사를 강사로 "복음이 이끄는 사명의 길(골로새서 1:24-29)"이라는 주제로 1월 29일(월)~31일(수) 오후 8시에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첫째 날 개강예배에서 조진모 목사는 "지팡이를 의지하여(출애굽기 4:18-20)"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 주셨고, 그 아름다운 음성에 응답한 은혜가 있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사명자로 불러 주셨다는 것은 처음 소명의 감격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라는 뜻이다. 그러나 중간에 포기하고 좌절

하는 자들이 많다.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듯이, 오로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맡겨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저녁에는 "Heart-line(시편 62:1-12)", 셋째 날 저녁에는 1일 부흥회로 퀸즈장로교회 교인들과 함께 "민들레 일어난 기적(마태복음 14:13-21)"을 주제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설교 후 교훈패 수여와 장학금 수여식, 신입생 환영회로 개강부흥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김재상 기자)

뉴욕교계 지도자 대 토론회

뉴욕목사회(회장 정관호 목사)는 1월 29일(월) 9시 30분 후러시제일교회(시무 김정호 목사)에서 '뉴욕교계 지도자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준희 목사(부회장)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는 현영갑 목사(기획혁신위원장) 기도와 정관호 목사(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정관호 목사는 "한 때는 한인 교회가 발전했지만, 최근에는 교회와 교인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주일학교가 붕괴되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영상예배의 좋은 점도 있었지만 현장예배 참석자는 줄어들었다. 이에 차세대 대책과 후원이 필요하며 노인세대도 교회의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오늘 교계 지도자 토론회를 통해서 앞으로 잘 진단하고 방향을 설정하여 해야 할 일을 진행해 나갈 줄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자 강원근 목사(뉴욕감리교회), 김정호 목사(후러시제일교회), 김현준 목사(청소년센터 사무총장), 이성현 목사(뉴욕행복교회), 이종범 목사(뉴욕만백성교회), 주영광 목사(넘치는교회), 주효식 목사(뉴욕정원교회), 최창섭 목사(에벤에셀선교교회), 황영송 목사(뉴욕수정교회), 황하균 목사(뉴욕소망성결교회)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교계와 청소년 사역에 대해 다양한 관심과 소망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었다.

△ 강원근 목사(뉴욕감리교회)는 "주님의 일을 성령의 능력아래서 행하고 주도권을 주님께 내주어 주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성현 목사(뉴욕행복교회)는 "사람중심의 인본주의가 문제를 일으킨다. 교회론을 올바르게 세우고 각자에게 맡겨진 직책만 충실히 한다면 교회와 교계는 나아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 주영광 목사(넘치는교회)는 "사역을 통하여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찾지 못해 이벤트 중심의 사역을 해온 거 같다"며 "목회자들에게 도전과 영감, 공감을 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이벤트라 할지라도 교계와 목회자들이 큰 도전을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 주효식 목사(뉴욕정원교회)는 "지금 교계는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관심으로



▲사회 한준희 목사 ▲토론자 강원근 목사, 이성현 목사, 주영광 목사, 주효식 목사, 최창섭 목사, 황영송 목사, 황하균 목사, 김현준 목사, 이종범 목사, 김정호 목사

부터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교계의 위치"라고 말하며 "이러한 모임과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의식이 순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자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면 어떤 하나의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2세 청소년을 위한 의견에 대해 △ 최창섭 목사(에벤에셀선교교회)는 "36년이 지난 지금, 뉴욕청소년센터는 관심이 약해져가고 도외시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소년센터를 중심으로 다른 청소년 사역자들과 연합하여 앞으로 주어진 당면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표명했다.

△ 황영송 목사(뉴욕수정교회)는 "청소년을 위해 뉴와인스킨즈 필요와 목회 청소년들의 전문인들을 위한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소년의 부모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전도를 해야 하고 2세 교역자들에게 목회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목회연구원이나 청소년 전문인의 사역이 제대로 된다면 데이터를 공유하고 고민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황하균 목사(뉴욕소망성결교회)는 "KM 목회가 EM 목회자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고 언급하며 "청소년 목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고 청소년센터나 교회협의회의 활동에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소년센터 사무총장 김현준 목사는 "10년 전에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때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 까지 똑같은 이야기이다. 이번

만큼은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나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또한, 이민사회 문제에 대해 △ 이종범 목사(뉴욕만백성교회)는 "목사들의 거룩성, 신실함, 개인 영성개발 등이 우리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방안이 될것"이라고 강조

하며 "우리 스스로가 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민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이 더욱 용이할 수 있고 목사에게 이민 사회 문제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김정호 목사(후러시제일교회)는 "뉴욕에 속한 목사님, 평신도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가능성과 잠재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가능성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은 친구들"이라고 강조하며 "이제부터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있는 네명의 친구가 되어 뉴욕교계 가능성을 능력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본 토론회를 통해 많은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후러시제일교회는 청소년센터에 후원금 5,000불을 전달했다. 이어 하정민 목사의 폐회 및 오찬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홍현숙 기자)



총신대 미주동부동문회 2024 정기총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 2024년 정기총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미주동부동문회 2024년 정기총회가 1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부르클린제일교회(담임 이윤석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예배는 인도 이규섭 목사(79회, 회장), 기도 변창국 목사(81회), 설교 이윤석 목사(80회), 수석부회장, 헌금기도 이상만 목사(88회, 회계), 광고 정주성 목사(86회, 총무), 축도 박성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윤석 목사는 "사명자의 삶(디모데후서 4:1-8)"을 주제로 전한 말씀을 통해 "점점 세상은 불순물로 오염되고 교회마저 그런 물이 스며들어 변질되어 가는 이때에 주어진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역자,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했다는 바울사도의 고백이 총신동문들의 사역의 중심이 되고 마지막 고백이 다 되기를 소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2부 총회는 회원모형 우종현 목사(85회, 서기), 개회선언 회장, 전회의록 낭독 서기, 회계보고 회계, 사업보고 총무, 압원선거 및 신규임원 교체, 전회장에게 감사패 증정, 폐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신임 임원은 회장 이윤석(부르클린제일교회), 수석부회장 장의한(뉴햄프셔장로교회), 부회장 김성국(퀸즈장로교회)와 김요셉(예수생명교회), 총무 정주성(나루교회), 서기 김홍선(새은혜교회), 회계 이상만(베이지교회) 목사 등이

(정리: 김재상 기자)



고등부 농구대회에서 우승한 퀸즈장로교회 팀이 기념 촬영을 했다

2024 청소년 농구대회, 팬데믹 후 처음으로 다시 열려

우승 퀸즈장로교회, 준우승 뉴욕그레이트넥교회

뉴욕교협 산하 AYC 청소년센터(대표 최호섭 목사)는 2024 청소년 농구대회를 1월 27일(토)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에서 개최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농구대회는 교회 별로 참가한 모든 청소년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과 학부모 및 관객들의 열띤 응원과 참여 속에 미래를 이끌어나갈 주인공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고등부는 총 8팀이 참가신청을 했으며, 중등부는 3팀이 신청했으나 중등부는 신청한 팀 수가 너무 적은 관계로 취소됐다. 고등부 대회 참가교회는 뉴

욕센트럴교회,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뉴욕그레이트넥교회(담임 양민서 목사), 아름다운교회(담임 계재광 목사), 뉴욕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 뉴욕중앙장로교회(담임 김기호 목사),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 뉴저지 베다니감리교회(담임 백승린 목사)이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고등부 경기는 오후 6시에 끝났다. 경기 결과는 우승 퀸즈장로교회, 준우승 뉴욕그레이트넥교회가 각각 트로피를 차지했다. 대회 종료 후에는 참가자들과 관객들이 서로 소통하며 친교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정리: 김재상 기자)



극동포럼 휴스턴 정영호 목사 초청 세미나 후 사진 촬영했다

극동포럼 휴스턴 정영호 목사 초청 세미나

뉴욕극동포럼에서는 1월 21일 주일 오후 4시, 뉴저지 새로움교회 (220 Walker St, Cliffside Park, Cliffside Park, NJ 07010)에서 휴스턴 총영사 정영호 목사를 초청하여 리더쉽 세미나를 개최했다.

뉴욕극동포럼은 2011년 10월 7일에 창립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세워진 모임이다. 외롭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발족된 뉴욕극동포럼은 이웃과 함께하며 기쁨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빛과 소망" 후에는 참가자들과 관객들이 서로 소통하며 친교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Joshua 박의 개회선언 후, 상임 고문 방지각 목사의 기도, 희망 재단 변종택 회장의 축사 후 뉴욕극동 포럼 박성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시대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 기독교의 가치관인 사랑을 실천하자고 하였다"고 전했다.

총영사 정영호목사는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쉽"의 강연을 통해 이 시대의 리더들이 느헤미야의 리더쉽을 통해 연구, 소통의 능력, 타겟의 구체화, 상대방의 필요 파악, 일체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순서는 국제복음 개혁 신학대학교 총장 김득해 박사의 축사로 세미나를 마쳤다.

(기사제공: 더 나눔하우스)

뉴욕극동포럼 운영위원장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소리엘 장혁재와 함께하는 러브 투게더 콘서트가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열렸다

굿네이버스 소리엘과 함께하는 러브 투게더 콘서트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가 되자”

굿네이버스 소리엘 장혁재와 함께하는 러브 투게더 콘서트가 1월 26일(금) 저녁 8시 갈보리선교교회(담임 심상은 목사)에서 열렸다. 심상은 목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세계 48개 국가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감사하다”며 “굿네이버스 나눔대사인 소리엘 장혁재 목사가 전해주는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무거운 것들이 내려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장혁재 목사는 “찬양콘서트가 단지 콘서트로 마치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 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교수가 된 이유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굿네이버스에서 아프리카 니제르에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는 사역을 하는데 참여했다”며 “니제르에 80여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굿네이버스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선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좋은 교회가 많다. 하지만 위대한 교회는 많지 않다. 위대한 교회가 되어질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 될 수 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이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 한다”고 당부했다. 장혁재 목사는 ‘소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낮은 자의 하나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나로부터 시작되리’, ‘야곱의 축복’을 불렀다. 이날 콘서트는 이원석 목사(OC목사회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 창립25주년 감사예배에서 열린 임직식에서 신승훈 목사가 공포하고 있다

주님의영광교회 창립25주년 감사주일에배 “천국열쇠는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자들의 것”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창립25주년 감사주일에배가 1월28일(주일) 예배시간에 거행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열린 2부 예배는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신승훈 목사 사회로 열려 조영호 장로가 기도했으며 영광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목사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신승훈 목사가 ‘천국열쇠를 주리니(마 16:13-19)’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승훈 목사는 “천국열쇠를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자들이다. 열쇠를 가진 자는 세상에서 사랑, 은혜, 복, 평안, 지혜, 기쁨, 그리고 생명이 필요한 자들을 꺼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자에게 천국열쇠를 주신다고 했다”며 “천국열쇠를 받은 자들인 우리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충만 받아 사랑, 은혜, 아버지께서 주신 복, 평안, 지혜, 기쁨이 넘치는 자들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직식을 통해 김준우, 엄성영, 정문근, 허영범 씨가 안수집사로, 김지연, 김한

옥, 김현주, 정점희, 최경민 씨가 권사로, 정승원 씨가 명예장로로, 그리고 안 그레이스, 이명자, 전 엘리자벳 씨가 권사로 임직됐다. 이날 예배는 신승훈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미주성결교회 신년시무예배

미주성결교회(총회장 허정기 목사)가 지난 1월 15일 캘리포니아 토렌스에 있는 총회본부에서 신년 시무예배를 드리고 미주교회의 부흥을 기원했다. 이날 시무예배는 총회 임원과 전 총회장, 전 장로 부총회장, 전 총무 등 미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총회장 조승수 목사의 사회와 부총회장 최은호 장로의 기도, 서기 김종호 목사의 성경봉독, 전 총회장 최경환 목사의 설교에 이어 총회장 허정기 목사의 신년인사와 합심기도회, 전 총회장 이용원 목사의 축도로 진행되었다. 총회장 허정기 목사는 신년사에서 “우리 교단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에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이 함께

OC전도회연합회 회장 이사장 이취임감사예배

“기독인들의 본질회복에 포커스 맞추고 사역 이어갈 것”

오렌지카운티전도회연합회(이하 전도회연합회) 44대 회장, 42대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월 27일(토) 오전 10시 오렌지가나안교회(담임 김인철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신용 회장은 “하나님께서 사용해주시고 전도회연합회 이사들과 자문위원들의 격려로 회장을 다시 맡게 되었다. 2년 전에 회장에 취임하면서 평신도 기독인들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포커스 맞추고 사역을 진행했다. 3년째 회장을 맡으면서 올해도 평신도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지난 2년간 OC교계단체들이 잘 연합해서 OC 지역에 신앙의 물결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올해도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우경 이임 이사는 “앞으로 전도회연합회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며 그 이름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연합의 모습으로 교계가 함께 발전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민길 신임이사장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한 연합회에서 이사장 직분을 다시 맡게 되었다. 2024년에도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되는 자 되도록 노력하겠다. 시편1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윤우경 권사(41대 이사장, 샘커뮤니티교회) 사회로 시작된 이취임식은 신용 회장의 회장을 다시 맡게 되었다. 2년 전에 회장에 취임하면서 평신도 기독인들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포커스 맞추고 사역을 진행했다. 3년째 회장을 맡으면서 올해도 평신도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지난 2년간 OC교계단체들이 잘 연합해서 OC 지역에 신앙의 물결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이 올해도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OC전도회연합회 이취임 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한국창작동요 100주년 기념음악회가 지퍼콘서트홀에서 열렸다

한국창작동요 100주년 기념음악회

‘한국정서가 담긴 뿌리교육의 열매가 맺힐 것’

한국창작동요 100주년 기념음악회가 ‘함께하는 동료’라는 주제로 1월27일(토) 오후 6시 지퍼 콘서트홀에서 보나기획(대표 이해자) 주최로 열렸다. 이해자 대표는 “한국창작동요 100주년 기념음악회를 갖게 되서 기쁘다”라며 “이 음악회를 위해서 미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꿈나무들을 위한 한국정서가 담긴 뿌리교육의 열매는 모두의 가슴속에 성대하게 맺힐 것”이라 말했다. 윤임상 교

수(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장, 라크마 음악감독)는 “보나기획이 주최한 기념음악회는 우리의 가슴을 몽클하게 한다”며 “어린이부터 중장년, 그리고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그룹이 한국동요를 부르는 모습은 감동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소프라노 김종숙 씨와 테너 양두석 씨 사회로 열린 이날 기념음악회는 ‘봄날의 꽃잎과 하늘의 구름처럼’, ‘푸른세상 만들기’ 등 2000년대 작곡된 동요부터 ‘달맞이’, ‘오빠생각’ 1920년대, ‘햇볕은 쨍쨍’, ‘무지개’ 1930년대, ‘어머님 은혜’, ‘우리나라 꽃’ 1940년대 등을 비롯해 1950년, 1960년, 1970년, 1980년의 동요와 ‘오늘이’, ‘꿀벌의 노래’, ‘우주자전거’ 등 1990년대 까지 작곡된 곡이 연주되었으며 청중들과 함께 동요를 부르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Vocielesti Children’s Choir, Vocielesti Adult Chior, Cahurunga Elementary Shool Choir, Evergreen Women’s Choir, LA Cherity Cjoir, Three Angels Singers, WODC Korean School Children’s Choir, KAMA Women’s Choir, Golden Choir, Young Angels Choir 등 합창단들과 오윤서, 윤송화, 황준서, 김정현, 여하랑, 김유이 어린이들이 출연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미주복음방송 ‘2024 나눔On희망On 자선콘서트’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에서는 2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남가주동신교회, LA주님의영광교회, 엘바인 베델교회 3곳에서 ‘2024 나눔On 희망 On’ 자선콘서트를 개최하고, 이어 2월 13일(화)에는 ‘나눔On 공개모금생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나눔On콘서트’에는 ‘은혜’ 찬양의 작곡가 겸 예배인도자 손경민 목사(은혜 워싱턴 찬양사역자 이윤화, 찬양사역자 주리, 피아노 김정희, 색소폰 이기명)이 함께 한다. 이번 자선콘서트와 공개모금생방송을 통해 얻어지는 모든 수익금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의 컨테이너 하우스 제작,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위한 구호물품과 현지 교회 지원, 아이티의 쓰레기 마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빵과 예배서역 뿐 아니라 남가주 지역 내 여러 자선단체들을 돕는 일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 문의: (714)484-1190

새민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설립 24주년을 맞는 새민음장로교회(PCA 미국장로회 한인 남부노회 소속)에서 제 2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PCA교단 소속이거나 교단가입에 하자가 없고 M.Div 이상 학력자, 풀타임으로 미국에서 3년 이상 담임 목사 또는 부목사 경력이 있는 이중 언어가 가능한 자.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 및 가족소개서, 목사 안수증, 졸업증명서, 추천서와 최근 설교 동영상 3회분. 신앙고백서, 목회철학과 이민목회 계획서, 제출 마감은 4월 15일 까지이며 9742 Clay Road, Houston TX, 77080 청빙위원회 앞으로 보내면 된다. 본교회 웹사이트 www.kfpch.org

▲ 문의: lee1954us@yahoo.com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점 개원식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지점’ 개원식이 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본 클리닉은 전문의로그그룹 센터메디컬그룹이 직접 운영하는 직업 병원이며 주치의는 임대홍 내과 전문의. 개원식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떡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주소는 12372 Garden Grove Blvd, Unit B, Garden Grove, CA 92843.

▲ 문의: (714)800-3168

효사랑선교회 시니어 대학 불학기 개강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시니어대학(학장 정찬군 목사)이 2024년 불학기를 2월 13일 화요일에 개강하여 17주 동안 진행한다. 커리큘럼으로는 1) 성경과노라마, 2) 음악 교실, 3) 난타 교실, 4) 힐링댄스, 5) 하모니카 교실, 6) 영어교실, 7) 사진교실, 8) 악기 클라리넷, 9)미술(페인팅) 교실,등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등록금은 매월 100불. 점심식사를 제공하며 등록 신청은 선착순 마감. 주소는 7342 Orangethorpe Ave #B 113 Buena Park CA 90621

▲ 문의: Cell (714) 833-2710, (562)-833-5520



감신 미 서부지역 동문회 신년하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감신대 미서부지역 동문회 신년하례식과 총회 열어

감신대 미 서부지역 동문회(회장 김종환 목사)의 신년하례식과 총회가 지난 1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LA 한인타운에 있는 코지호텔(구 로텍스 호텔) 2층 뱅킷 룸에서 열렸다. 겨울비가 내리는 우중에도 불구하고 40여 명의 동문 가족들이 만나 새해 덕담을 주고받으며 건강한 새해를 다짐하는 화기애애한 하례식이었다. 1부 예배, 2부 교가제창과 기념촬영, 3부 정기 총회, 4부 ‘봄의 소리’ 음악회, 5부 오찬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용근 목사(동문회 회계)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김태근 목사 기도, 정지한 목사 설교, 이처권 목사 축도로 진행됐다. 정지한 목사는 최근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 ‘대광 큰 빛 인생 석양길에서’를 소개하면서 부제로 붙은 ‘불에 타다 남은 숯덩이 같은 (삼3:2)’을 설교 제목으로 “웨슬리 목사가님 말씀 하신 대로 나 자신도 불에 타다 남은 숯덩이 같은 인생이었지만 목사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덕분이었다”고 설교했으며, 자신의 회고록을 모든 동문들에게 새해선물로 증정했다. 예배 후 감리교신학대학 교가(홍현실 작사, 이동일 작곡)를 제창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이어 정기총회는 김종환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어 회계 보고 후에 임원선출에 들어가 회계로 일했던 김용근 목사(라크라센터 벨리 KUMC)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이날 동문회 하례식에서는 LA 한인사회 저명한 성악가들로 ‘봄의 소리’ 음악회가 열려 소프라노 김미경 사모를 비롯, 테너 오위영 목사, 바리톤 장상근, 정홍준 테너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 냈으며 김주영 씨가 피아노 연주에 나섰다. 이날 열린 봄의 소리 음악회는 동문인 강신욱 목사(강신욱 내과 대표, 생수의 강 원로목사)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김용근 신임회장은 “임원단의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동문회 단독방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리: 박준호 기자〉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48)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아프리카의 의존성에 해결책은 있는가? 말라위에서 (1)

“김미모니, 김미모니” 아이들이 외친다. 사진을 찍으려 하면 손사래를 하며 돌아선다. 어린 아이의 안타까운 모습에 50센트 정도 되는 돈을 주었더니 엄마는 아이의 손에 돈을 꼭 쥐어 주고 사진을 찍도록 허락하며 기뻐한다. 나는 한 아이 엄마와 산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남자에게 합하여 일 달리를 주고 두 번의 사진을 찍었다. 2024년 1월 아프리카 동남부의 내륙 국가인 말라위에서의 일이다. 국가 면적은 남한과 비슷한데 그 1/3이 호수이다. 인구가 2천만 명이 넘으니 인구밀도는 높은 편이다.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 중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고 오로지 농업에 의존하는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는 어느 곳을 방문하는가에 따라 그 인상이 많이 달라진다. 1997년 남아공화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는 감옥에서 출소한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들뜬 사회적 분위기와 유럽의 일부가 더 넓게 펼쳐진 것 같은 기존 인프라는 희망의 대로가 활짝 열린 느낌이었다. 그러나 2010년 남아공화국은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져서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꺼려지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였다. 길에서 도둑을 만나거나 집안에서 강도를 당했다는 얘기를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 듣고 마음이 아팠다. 요즘은 더 나아져 간다는 소식을 듣기가 어렵다.

아프리카 전체의 문제를 단순히 설명할 수는 없다. 식민지 역사를 논하고 신자유주의 경제를 말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의존 문제는 역사, 경제, 사회 및 정치적인 다양한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및 사설 부문을 포함한 여러 이해 관계자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이 제시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 선교사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경제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한다. 농업, 광업 및 석유와 같은 전통적인 원자재 외의 부문에 투자하여 경제 다각화를 촉진해야 한다. 기술, 제조업 및 서비스와 같은 산업을 촉진하여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고 단일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말라위와 같은 나라는 그나마 광업, 석유와 같은 자원이 없다. 거의 모든 공산품이 남아공을 통한 수입품이다. 어떻게 기술과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선교사가 국가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선교와 비즈니스의 모델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인가.

교육 및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 한다. 노동 인구의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 직업 교육을 우선시해야 한다. 잘 고

육된 및 숙련된 인구는 혁신과 기업이 정신을 촉진하여 외국 의 전문 지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그런데 말라위 살리마의 공립초등학교 45명 정도인데 8학년 학생은 50명으로 줄어들었다. 점점 아이들이 많이 낡아 숫자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중간에 탈락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다. 특히 여학생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다. 그 이유를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였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다 생리를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없어 학교를 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생리를 대를 살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학교에서 생리대를 바꿀 수 있는 장소도 없어서 집에서 3-4일을 쉬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학습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학업에 관심을 잃어버리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또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임신하여 학교를 중퇴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없이 바닥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는 저학년 학생들을 보며 1960년대 초 한국의 시골 학교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금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본다.

소규모 및 중소기업(SMEs)을 촉진해야 한다고 한다. SMEs의 성장을 지원하여 자금, 교육 및 시장 기회에 접근 가능하게 도와야 한다. 중소기업은 저개발 국가에서 특히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

친다. 중소기업이 거의 전무한 환경에서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외국의 투자가 절실하지만 모든 환경을 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특히 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통, 에너지 및 통신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에 투자하여 물류 장벽을 줄이고 외국 투자를 유치해야 할 것이다. 중요한 몇 개의 국도를 제외하고는 비포장된 도로가 교통을 막고 있어서 과감한 인프라 개선이 시골 지역을 도시 시장에 연결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대규모의 물량공세를 하고 있다. 수도 킬롱게의 국회의사당과 운동장을 건축하여 주었고, 지금은 거리 곳곳을 파헤쳐 놓고 수년이 지나도록 포장 공사중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외국의 자본으로 시작된 인프라 구축이 현실적인 발전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신뢰받는 지배력 강화 및 부패 저감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스스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 체제를 시행하여 부패를 줄이고 공공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하는 책임은 아프리카 국가들에 있다. 수없이 많은 외국의 원조들이 중단되는 이유는 불안정한 정국과 지도층의 부패에 있다고 한다. 좋은 정부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말라위는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예외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안정적인 정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이다. 대법원의 부정 선거 판결을 따르는 대통령과 야당의 후보이며 교회에 담임하였던 목사를 다 시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들은 민주적 절차를 따르는 국가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말라위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이다.

지역 통합을 통한 아프리카 국가 간의 지역 경제 통합 및 무역을 촉진하여 더 큰 시장을 만들고 경제 협력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외국 시장에 대

한 의존도를 줄이고 아프리카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선교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서민들에게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는 미소금융의 사례들이 인도와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에서 실험적으로 실시되어 왔지만 아프리카의 사례들을 더욱 연구하고 실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농업인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촉진을 위해 국가적 정책은 몇 번의 변화를 가져왔다. 1964년 독립부터 30년 동안 장기집권을 지속한 반다 대통령은 가난한 농부 출신으로 농부들이 굶주리지는 않도록 국가부채 경제를 실시하였다. 그는 냉전 시대에 반식민주의를 표방하지 않고 반공주의를 지킨 독특한 아프리카 지도자였다. 탈냉전 이후 세계적 민주화 흐름으로 인하여 30년 만에 선거를 통해 물러났지만 배고픈 농부들에게는 인기가 있었던 권위주의적인 정치인이었다. 그 이후 바킬리 물루지가 정권을 잡았으나 엘리트주의 정치로 국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10년 만에 선거에서 패하고 말라위에서 추방을 당했다. 다음은 빙구와 무타리카가 대통령이 되어 경제를 많이 발전시키고 재선에 성공하였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고 최초의 여성대통령 조이스 반다가 잔여임기를 채웠다. 이후 동생 피터 무타리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재선에 실패하고 부정선거 판결로 물러나고 목사 출신이 라자루스 차퀘라가 대통령이 되어 정부를 이끌고 있으나 팬데믹과 세계적인 경제 침체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기를 잃고 있다. 이런 환경 가운데 가능한 농업 관행을 촉진하여 식량 안보를 높이고 식품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가끔 선교사들은 현대 농업 기술, 관계 및 가치 추

가 가공에 투자하여 농업 생산성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을 해본다고 하지만 성공적인 사례를 들기 어렵다.

아프리카에서 보건 및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선교사들의 노력은 선교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보여진다. 말라위에는 한인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있다. 간호사인 백영심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시작하여 클리닉이 한국의 대양상선 정유국 사장의 사재 출연으로 200병상의 대양누가병원으로 발전하였고, 김수지 박사와 같은 여러 의료인의 참여로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간호사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ICT 대학을 설립하여 보건의로 발전과 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왔다. 그러나 1달러 정도의 진찰, 진료비를 무료로 하여달라는 정치인의 요청을 듣게 된다는 의사 선교사는 앞으로 발전해야 할 보건 시스템과 사회 안전망의 개발은 인구의 전반적인 의식 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건강하고 교육받은 노동 인구는 경제 성장과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필수적인데 그 해결책은 결국 교육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혁신과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것은 현재의 수준으로는 요원해 보이는 것 만 같다. 교육받은 전문 인력들은 자국을 떠나 발전된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는다. 말라위의 전체 전문의 숫자는 영국의 한 도시에 남아 있는 말라위 전문의 숫자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가 회자하고 있다. 돌아와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이 없다는 이유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의 고리는 모든 저개발 국가의 현실이다. 그들에게 애국을 말하기에는 현실은 너무나 열악하다. 더 개발된 국가로부터 기술 이전을 촉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희생할 수 있는 의식 있는 리더들이 더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C. S. 루이스의 작품 산책 (I)



강태광 목사
(월드케어USA대표)

기독교적 숙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인문학자 C. S. 루이스는 많은 책을 남겼다. 루이스의 작품은 다양한 장르를 자랑한다. 루이스의 책들 가운데 신앙인들에게 잘 알려진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과 같은 책도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인간 폐지, 개인기도 등도 있다. 루이스의 작품 산책에서 루이스의 책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루이스의 책 중에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읽을 가치가 있는 책들이 많다. 그중에 하나가 “기독교적 숙고 (Christian Reflections)”다. 이 책은 한글 제목에 등장하는 ‘숙고’라는 단어가 적 잘 어울리는 책이다. C. S. 루이스가 다양한 현장에서 발표한 글과 강연의 내용을 모은 글인데, 14개의 각기 다른 주제들 즉, 그야말로 목적인 주제에 대한 소논문들이 담겨 있다. 그야말로 다양한 주제에

관한 C. S. 루이스의 숙고(熟考)들이다.

이 글들을 모아 편집한 사람은 루이스의 마지막 비서였던 월터 후퍼(Walter Hooper)다. 월터 후퍼는 원래 이 글들은 루이스가 출판용 목적으로 쓴 글들이 아니었다고 밝힌다. 그러니까 이 책에 담긴 14개의 주제의 글이 출판용을 위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글이 아니라서라는 것이다. 이 글들은 C. S. 루이스가 특정 주제에 대한 숙고를 주제와 관련된 독자(讀者)들이나 청자(聽者)들과 나누는 후에 그 원고들을 모아 편집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책에 담긴 14개의 글은 대략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완전한 기독교인들을 위한 글들이 있다. 예컨대, 교회 음악에 대하여, 시편, 영원 주제에 대한 소논문들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책을 너무 어렵게

이다. 둘째는 기독교인들과 일반 시민들에게 기독교의 세계관을 설명하는 글들이 있다. 예컨대,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와 문화, 역사주의, 그리고 종교의 언어 등이 이런 글들이다. 셋째는 일반 대중을 위한 글들이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글은 종교: 실재인가 대체물인가? 윤리에 대하여, 허무에 대하여, 주관주의의 독, 위대한 신화의 장례식 등등의 글이다.

이 책은 가볍게 읽을 책이 아니다. 윤리, 허무주의, 주관주의, 역사주의, 진보주의, 등등의 목적인 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다. 쉬운 책은 걸으며 읽기도 하고 약속장소에서 만남을 기다리며 읽기도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종류의 책이 아니다. 석학 루이스가 숙고를 통해서 내어놓은 책이니 독자도 숙고하며 읽어야 할 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책을 너무 어렵게

여기고 접근을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책은 일반 시민들이나 평신도들에게 교회와 신앙 그리고 신학을 소개하는 글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개되는 논리는 진지하지만, 용어나 사례는 아주 일반적이고 평범하다.

전체적으로 이 책은 보편적인 종교 현상 그리고 종교의 본질을 파헤친 글이다. 신앙을 잃었다가 회복한 경험을 가진 루이스의 아픔이 녹아난 글이다. 루이스와 유사한 물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답을 제공하고 미처 이런 고민과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각 거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루이스는 우리 삶에 스며든 언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명해 준다. 그 한 예가 “역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십 년간 사용한 역사라는 용어의 애매함을 C. S. 루이스의 글을 통

해서 정리할 수 있었다. 사실 루이스의 글을 읽기 전에는 루이스가 말하는 역사의 다양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다. 루이스는 숙고를 통해 역사의 의미를 명쾌하게 정리한다.

루이스가 말하는 역사의 의미를 정리해보면 첫째, 역사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시간의 총체를 의미한다. 둘째, 쉼이란 과거의 시간의 총체다. 셋째, 현존하는 증거로 발견할 수 있는 과거를 의미한다. 넷째, 역사가들이 발굴하여 구성한 지난날의 모습이다. 다섯째, 과거를 연구한 역사가들이 견해를 의미할 수 있다. 여섯째, 역사는 일반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의 생각에 아련하게 떠오르는 모호하고 복잡한 과거의 그림을 의미한다.

책 제목처럼 루이스는 논리적 구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의 논리적 숙고는 궁극적으로 기독교적 숙고다. 루이스의 숙고는 기독교 신앙의 합리적 접근을 모색한다. 사실 성숙한 신앙은 숙고가 필요하다. 신다. 루이스와 유사한 물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답을 제공하고 미처 이런 고민과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각 거리를 제공하는 책이다.

기독교와 문화, 기독교와 문학이나 교회 음악에 대하여 등등의 글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준다. 그 한 예가 “역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수십 년간 사용한 역사라는 용어의 애매함을 C. S. 루이스의 글을 통

독특한 성경관인 문학적 성경관을 소개한다.

이 책을 읽으며 루이스의 삶과 사물 그리고 사회에 대한 숙고에 감탄했다. 나아가 그의 세련된 글도 좋았다. 루이스는 숙고한 흔적이 역력한 글들로 해당 주제는 물론 삶의 일반적인 문제에도 숙고한 해답을 제시한다. 루이스는 우리 삶에 침잠(沈潛)한 문제들을 숙고할 통해 풀어내고 있다. 세대 간의 갈등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루이스의 글을 읽고 무릎을 쳤다. 루이스는 “인류가 행한 실수들 가운데는 너무도 자주 저지르고 회개해서 이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모든 세대가 자기 앞 세대를 불공평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본주의자들이 중세철학을 무지하게 경멸한 것이나, 낭만주의자들이 18세기 시를 멸시한 것 등입니다.”라고 말한다.

〈기독교적 숙고〉에 나오는 일곱 번째 글인 ‘위대한 신화의 장례식’에 나오는 글로 소위 연대기적 속물근성(Chronicle Snobbery)을 질타 한 것이다. 이 짧은 글을 읽고 감탄했다. 모든 정부가 이전 정부를 비난하는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모든 세대는 전 세대를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루이스의 이 짧은 글이 정부 간의 갈등을 보며 느낀 오랜 답답함을 풀어주었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말라기가 받은 계시(말1:1-14) 찬 102장

첫째, "여호와와 왕이시다"는 뜻을 가진 말라기의 계시는 저 역사의 지평선 넘어 하나님 나라의 동이 뜨는 장면을 생각해 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 구약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 예언은 이렇게 어두운 시기에 임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외식의 죄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적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반문하며,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헛된 예배를 드렸습니다.(8) 교회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시대에도 하늘 찌르는 바리새인의 경건은 외식에 갇혀있었기 때문에 구제, 기도, 금식, 전도, 교육, 그리고 연구를 모두 다 하는데도 마귀의 자식이 되었습니다.(마 23:23) 오늘날 신자는 이런 책망에 귀를 기울여 회개해야만 소망이 생깁니다.

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말2:1-16) 찬 9장

본문은 경고를 무시한 제사장들의 불신앙과 타락상을 책망하면서(2,3,8,12) 회개를 촉구합니다.(8)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삶의 표준은 어떠해야합니까? 첫째, 주의 언약을 사랑해야 합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평강의 언약이며 진리와 화평과 정직의 법이기 때문입니다.(4-6)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 곧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입니다.(7) 한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둘째, 사람

과의 언약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영향은 일반 백성에게 여러 방면에 미쳤습니다. 어릴 때 맹약한 아내와 이혼했으며(16) 그 결과 궤사가 나오고(14) 경건한 자손이 생산되지 못했습니다.(16) 하나님과의 언약 파괴가 사람과의 언약관계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파괴는 하나님과의 언약파괴의 증거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신자들은 이 언약을 중시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수 언약의 사자의 강령(말2:17-3:5) 찬 102장

이스라엘의 무분별한 상태(17)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보내어 구원과 심판을 나 여호와와 종말에 보내시는 언약의 사자가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여기, 언약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 언약의 사자로 있습니다.(1,7)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맺은 구속의 언약을 따라(갈 4:4)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의 은

혜언약을 완수하여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둘째, 언약의 사자는 두 가지 사역에 충실할 것입니다. 하나는 불과 잿물처럼 죄를 제하는 구원(2-4)과 다른 하나는 경외치 않는 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5) 그리스도의 이 두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구원받은 우리는 전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히 13:15-16)

목 회개의 복(말3:6-15) 찬 502장

타락의 길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7) 어떻게 돌아갈까요? 첫째,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가 문제였습니다.(7,13,15) 어떻게 돌아가며, 어떻게 도적질했으며, 어떻게 대적했는가를 반문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특히 제사장으로서 심일조와 헌물 그리고 이웃을 돕는 일에 상습적 죄를 범했습니다. 자신의 타락을 진실되이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둘째, 돌아가

면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만 스스로 돌이키는 의지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은 돌이키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부오심을 느낄 정도로 넘치게 부오십니다.(10) 무엇보다, 회개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아 유쾌한 날이 이르게 하십니다.(행 3:19) 이 복된 일에 참여하십시오.

금 그 날의 역사(말3:16-4:6) 찬 167장

말라기서는 "그 날(the day)"에 관한 계시(1,3,5,17)로 마칩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시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하고 조명하여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분은 자기 백성을 인치시고(16-17) 치료하시고(2) 회개에 의한 구원 역사를 일으킵니다.(3,5-6) 그리고 섬기는 의인과 배반하는 악인의 구별도 나타낼 것입니다.(18,1) 우리는 지금 그리

스도의 오심으로 실현된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둘째, 그 날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언약을 기억하며(4) 여호와를 경외하며(16) 엘리야처럼 대적하는 자를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복을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6) 그리스도 초림으로 그 날이 온 것을 아는 우리는 모든 일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토 불과 잿물의 사역(말3:1-5) 찬 193장

말라기가 받은 메시아의 복음 사역은 두가지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는 불의 사역입니다.(2) 불의 맹렬함처럼 불같은 심판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을 가리켜 불을 던지러 오신 분, 불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했습니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야 순금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에게 의를 세우시는 불같은 사역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잿물의 사역

입니다. 얼룩진 옷을 클리닝하듯이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죄사함을 통한 진정한 구원이 그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두 사역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고마우신 이 사역을 새해에 깊이 묵상함으로 그 분께 영광을 크게 돌립니다.

기독교 교육 (42)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이중직 목회: 미래 목회 패러다임

이중직(bi-vocational)은 두 개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중직 목회란 교회 밖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목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중직 목회자를 두 직업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또한 스스로 돈을 벌며 목회비용을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자비량(自備糧) 목회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직 목회자는 사람들이 모든 직업을 동등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중직 목회는 목회 이외의 직업들의 가치를 행동으로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이중직 목회가 현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형교회(49명 이하)의 목회자 3명 중 1명이 이중직 목회자이고, 54%의 목회자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직 목회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78%, 이중직 목회를 호의적인 성도가 65%에 이릅니다.

둘째, 이중직 목회는 목회자들이 실제 삶에서 자신들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로 목회자들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비현실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교회 밖의 직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교회식구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인들이 성경의 원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중직 목회에 대한 찬반이 분분합니다. 2022년 예장뉴스에 의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의존하지 않으므로 소신껏 목회할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 속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밖의 직업에 대한 재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신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직 목회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셋째, 이중직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정직하고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회자의 생계가 전적으로 목회에 달려 있으면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교회 구성원들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원이 있다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자유롭게 나누고 목회를 더욱 소신껏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목회와 설교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목회는 성직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정체성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세속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인들이 보기에 덕이 되지 않고 교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중직 목회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넷째, 이중직 목회를 통해 목회자들은 교회성장의 경쟁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장을 위한 경쟁에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건물, 교인수의 크기가 목회자들의 성공의 척도로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중직 목회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 교회"의 크기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2000년대 초반 여러 해에 걸쳐 미국 남침례교단 이중직 목회자와 배우자 협회(Bivocational Ministers and Spouses Association)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만났던 한 목회자가 자신의 이중직 목회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구조차(wrecker truck) 운전을 하는 목회자였는데 교회의 교인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교인들은 그가 목회에 전념하면 충분한 사례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그는 매주 수십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수 없어서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중직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섯째, 이중직 목회를 통해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위 평신도 사역은 교회 내의 핫이슈이지만, 전담 목회자가 있는 한 교인들은 그에게 의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직 목회에서는 교인들이 사역을 분담하게 되고 사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구분도 줄어들 것이라는 겁니다.

이중직 목회자와 배우자 협회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매년 수백명의 이중직 목회자들과 배우자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효과적인 목회를 연구하며, 이중직 목회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임 목회자만 부르시지 않고 이중직 목회자들도 부르신다는 믿음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중직 목회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중직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가장 큰 존경을 받는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들기와 목회라는 이중직 목회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직 목회자를 텐트 메이커(tent-maker)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중직 목회가 신성한 직업과 세속적인 직업의 구분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업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보케이션(vocation)이 암시하듯, 반성경적인 직업을 제외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이중

2021년 라이프웨이 리처치는 Faith Communities Today의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미국에서 매주 100명 이상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가 70%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중직 목회자들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중직 목회자가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이중직 목회는 미래의 목회 패러다임으로 진지하게 연구해야 할 분야입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 편지

그리스

할렐루야 살롬, 새해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심을 믿고 할렐루야하고 많은 기도제목들과 수없는 선교편지들 중에서, 저희들의 기도편지를 읽어주시고 기도 중에 기억해주시는 은혜에 또한 "감사 할렐루야" 뿐입니다.

아테네에서 소식 전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구호품과 약들을 나누어주던 캠프방문 사역을, 적은 수의 이들에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고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바꿉니다.

구호품을 나누어줄 때는 누구든 상관없이 더 받으려고만 하듯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 말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니, 그들과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전도지를 들고 앉아 있는 제 옆에 한 무리의 여성들이 모입니다. 쿠르디 코르만지어를 쓰는 "여지디"라고 합니다.

여지디. 여지디 종교를 믿는 소수의 민족으로 이슬람 테러집단 IS에게 심한 학살을 당하고, 21세기에 여성들이 성노예로 팔렸던 민족 여지디. 눈앞에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은 참 순수하고 꾸밈이 없어 보입니다. 함께했던 한 자매

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배가 고프다"고 하는 말을 들은 한 여지디 부인이, 난민 캠프 앞길에서 팔고 있는 과일을 사들고 와서 먹으라고 줍니다. 팔구 년을 난민 캠프를 다녔지만, 난민들이 먹을 것을 사서 우리 손에 주는 일은 처음입니다. 그날은 사실 아무것도 저희들이 구호품을 나누지 않은 날이었습니

다. 우리가 그들에게 차를 건네고 반겨 주는 것이 그들의 마음을 열게한듯, 그들 민족의 아픔들을 우리에게 나눕니다. 그들의 언어인 쿠르디 코르만지어 성경을 가져다 나누어 줍니다. 자기들 종교 외에는 철저히 배타적인 삶을 살던 소수민족 여지디. 접근하기 힘든 산지 등에 외부 세상과 떨어져 살던 그들이 민족의 재난을 통해서 난민이 되어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유럽까지 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숨은 뜻은 무엇일까? 그들 중에 유럽에서 복음을 듣고 갖은 고초 뒤에 구원을 얻은 이들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해주시고, 진리로 자유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구약의 유다왕국 요시아 왕 때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찾았습니다. 성전도 제사도 제사장도 다 있었는데 왜 율법책을 잃었을까?... 교회와 예배와 섬김도 다 있는데 성경이 어디 있을까?... 찾은 율법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고, 요시아왕은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현재 성경은 16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3200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서도 구

할 수 있고, 어느 책장에도 많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땅 밑에 숨겨진 보물을 찾고 캐듯이, 성경속의 영원한 진리를 캐고 찾는 사람은 진실로 복이 있습니다.

요시아왕은 공의와 정의, 심판 주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하며 회개합니다. 세상에서도 흔히들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은 하면서도 그 말의 심각성은 알지 못합니다.

"말세"라 하면 서둘러 오늘도 어제 같이 그대로 살아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와 함께, 폭죽을 터뜨리며 즐겁게 새해를 맞이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뭐 그렇게 소란하고 기쁘게 미래를 맞을 일들이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움과 불안이 드는 게 외려 솔직한 심정입니다.

믿은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선교사님과 교제 하던 중 "요즘 성경을 어디 읽고 계십니까?" 하고 자연스럽게 제게 물었습니다. 여기저기 주위 들은 말씀밖에는 진지하게 성경을 읽지 않았던 저는 부끄러워 우물쭈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영원한 진리인 성경이 있습니다. 아직 돌아갈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박금미 선교사 kummipark1957@gmail.com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파푸아뉴기니

▲ 종족명 파이루마 종족

▲ 인구 약 10,000명(계속 증가 추세)

▲ 종교 대부분 명목상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9%, 전통 종교 35%)

▲ 기타 문맹률 63% (여성 57%)

▲ 프로젝트 소개 2009년 성경 번역이 시작되어 창세기 일부, 요나, 룻기, 디모데 소개 전서 등이 초역되었으며 누가복음 초역이 진행 중이다. 2014년 GBT 선교사가 떠난 후에도 현지 성경 번역 단체인 BTA(Bible Translation Association of Papua New Guinea) 사역자와 현지 성경번역위원회가 사역을 이어 가고 있다.

▲ 프로젝트 진행 1980년에 창립된 BTA는 현지 자생 성경 번역 단체로서 SIL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파푸아뉴기니 소수 종족 성경 번역 사역에 현지 교회와 사람들을 동원한다. 이제 파이루마 성경 번역 프로젝트도 BTA 프로젝트가 되었다.

▲ 기도제목 1. 2016년 새로 조직된 성경번역위원회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잘 지원하도록 2. 초역된 성경들의 자문 위원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3. 남은 책들의 번역과 효과적인 성경 활용이 이루어져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우리에게 오바다가 필요하다

(2면에서 계속)

그날이야말로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정에 다른 날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바다가 약속하는 게 단지 하나님의 보복적인 정의만은 아니다. 그는 회복을 예언한다. 이 책의 마지막 세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역사적인 국경에 도달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하겠다고 약속하신다. (포로 생활 중인 난민들에게 이 얼마나 감미로운 메시지인가!) 애초에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일부이기에 사실상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했던 그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 골고다 이후를 사는 우리는 이 회복이 단지 땅 문제에 그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는 물이 바다를 덮을 같이 온 땅을 덮을 것이다(합 2:14).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될 것이다. 주여, 제발 그의 나라가 하루빨리 임하게 하소서(욘 1:21).

하나님의 통치야말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모든 잘못은 바로 잡히고, 지상에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인신매매, 인종차별, 그리고 살인이 마침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역사를 애초에 목격하신 대로 마무리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불의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오바다서를 곁할 기로 읽는 경우에 마치 세상이 단순하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누어 있다는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예언의 메시지가 은혜라기보다는 카르마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있다. 벨사살이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

한 그릇으로 술을 마셨던 것처럼(단 5:3). 예뻐 보이는 하나님의 성산에서 술을 마심으로 성전을 더럽힌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들과 열방은 계속해서 술을 마실 것이다(욘 1:16). 뭘 마신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붉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제 14:10).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렘 2:3). 유다의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그들을 약탈하기 위해 바벨론을 보내셨다. 그 결과 어느 이스라엘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주를 먹여 비틀거리게 하셨습니다"(사 60:3)라며 한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새날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너의 손에서, 비틀거리게 하는 그 잔 끝 나의 진노의 잔을 거두었으니, 다시는 네가 그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사 51:22). 이런 현실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불의

하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불완전하게 남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다는 단지 심판(16절)이 아니라 "시온산에 구원이 있으리라"(17절)고 말한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와 변함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나기에 가능하다.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우리 손에서 거두어 그의 아들에게 마시게 하셨다(막 14:36).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더 이상 진노의 잔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신다. 따라서 종말론이 주는 소망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한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로 하여금 우리가 마셔야 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게 하셨다.

by Brandon Cooper, TGC

명준모 위장내과

Joon Mo Myung GASTROENTEROLOGY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Q28, Q13 버스정류장 앞



Joon Mo Myung, M.D.
- NY Hospital of Queens 일반내과/위장내과 Faculty
- Ohio 종합병원 다년간 경험 풍부
-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위장내과 전문의 수료
- Baylor College of Medicine 일반내과 전문의 수료
- New York University 임상연구

송찬우목사의 조각 글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인생의 계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채마밭을 지키고 있으면서 음식의 맛을 돋궈주던 파와 입맛을 돋궈기 위해 가끔 채취해서 식탁 위에 오르게 해주었던 케일도 어깨를 땅에 닿도록 떨어뜨린 채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뒷 정원을 창문을 통해 내어다 보며 그것이 자연의 현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맞고 경험하고 보내는 육신을 가진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합니다.

르시던 '허사가'라는 것이 떠오릅니다. 그 '허사가' 1절은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세상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오.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 옥담도 우리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서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 146:2-5).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

예수님을 만나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아주 즐겨 부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도 물들지 않고 추운 겨울 내내 그런대로 겨울화단을 지키고 있던 아티초크 몇 그루가 내린 눈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모두

어깨를 내리 깔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저기 초록빛을 띠고 봄을 기다리고 있던 캘리포니아 로스들(California rose)도 무기력하게 납작 엎드린 채 일어날 줄을 모르고

이성자기자의 바IBLE 에세이

두렵도다, 이곳이여!

지나친 욕심 때문에 부모님과 고향을 등지고 도망자의 길을 가야만 했던 야곱이, 정처 없이 헤매다가 다다른 곳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빈들이었다. 해는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고 온 누리는 어두움의 장막으로 덮이는데, 피곤한 나그네는 돌을 베개로 잠을 청하고 있다. 적막하고 고독한 밤이 익숙해지는 즈음에, 꿈인 듯 생시인 듯한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와 지상에서 하늘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연속이었기 때문일까? 야곱은 자기의 출생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경쟁의식과 쟁취의 집념으로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되었다. 야곱은 어떤 강한 성취욕의 노예가 되어 일종의 도박을 하며 살았다고 생각되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할지라도, 형 에사와의 도박에서 장자 권한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과의 도박에서 하나님의 복을 사취하고, 마침내 외로운 방랑자가 되어서 정처 없이 고향을 떠나 광야를 방황하고 있다. 속임수와 거짓된 생활에는 반드시 두려움과 고난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을지라도.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창 28:16-17)

다. 인간이 사행심과 속임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인간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다운 믿음에서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야곱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은 '하늘의 문'이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의 공간에서 저쪽의 공간으로 옮겨가는 통로이다. 이 문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현세에서 내세로 나가는 길이다. 이러한 문의 발견은 놀라운 축복이다.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야곱이 고백하였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내 마음을 괴롭힐 때, 미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절망이 나를 사로잡을 때, 죽음의 공포가 나를 휩쓸 때, 저주가 내 마음에서 돌아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를 믿고, 그곳에 열린 하늘 문을 발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 새롭고 활기에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야곱이 지금까지 아버지 이삭에게 말로만 들던 그 하나님을 이제 두 눈으로 보게 되었다. 지금까지 관념 속에 갇혀 있던 하나님이 생생한 현장에 실존적으로 나타나셨다. 지금까지 말로만 들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된 야곱은 먼저 두려움이 앞섰다. 야곱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이 거짓과 속임수의

야곱이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이 돌연히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돌베개하고 누워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공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무지는 두려움을 가져온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두려워진다. 내가 너를 모르면 너는 나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진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너는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요일 4:18) 무지는 두려움이요, 불신앙이다. 무지는 걱정과 근심을 가져온다. 반면에 사랑은 즐거움이요, 믿

음이다. 사랑은 기쁨과 행복을 가져온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에게 대한 신뢰와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금까지 야곱의 생애는 사행심과 속임수의 연속이었

Exclusive Offer Available at Flushing, Fort Lee, Jericho, and Palisades Park Branches!

11 Month Certificate of Deposit

5.25% APY*



thebankofprinceton.com | 609.921.1700

*APY = Annual Percentage Yield. Promotion available at Flushing, Fort Lee, Jericho, and Palisades Park branches ONLY. Offer valid on an 11 Month CD with a minimum opening deposit of \$500 per tax ID. Once the initial 11 Month CD time has elapsed, the CD will roll over for an additional 11 Month CD at the prevailing interest rate. This will continue until customer notifies the Bank within ten (10) days of maturity date. Promotion begins at 9:00AM EST on January 8, 2024, subject to change or cancellation without notice. Early withdrawal penalty may apply; fees may reduce earning. Other terms and conditions may apply.



저희 프린스턴 은행은 한인 고객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자 및 예금 상품 안내를 포함한 궁금하신 사항은 www.thebankofprinceton.com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문익은 플러싱-체리코-포트리-팔리세이즈파크 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